

'비전교회와함께하기운동본부'에서 주최하는

제5차 신바람목회세미나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피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디모데전서 4:15-16)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한국교회는 그 동안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있습니다.

그 중에 미자립교회 문제는 큰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비전교회와 함께하기 운동본부에서는 작은 교회 목회자들을 위하여

다섯 번째 신바람목회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비전교회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부흥할 수 있습니다!

이 세미나가 여러분에게 귀한 도전과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2012년 3월 5일

비전교회와함께하기 운동본부 회장 **김진호** 감독

|||| 일정표 |||||

구 분	1일차(5일 월)	2일차(6일 화)	3일차(7일 수)	
07:00-08:00		왜 다윗인가? 시편78:70~72 이홍규 목사 (큰믿음유신교회)	이 일을 계속하라 딤후4:6~16 지성래 목사 (예수사랑교회)	
08:00-09:00		조 식		
09:00-10:30		다문화가정 중심 목회 박시현 목사 (월평교회)	목회와 정신건강 최의현 박사 (연세로템정신과 병원장)	
10:30~10:50		휴 식		
11:00~12:30		생태목회와 좋은마을 만들기 이종명목사(송악교회)	종합토의 및 정리	
12:30~13:30			박영욱이 주는 교훈 론4:10~11 김진호 감독(본회회장)	
13:30~14:30				
14:30~15:00	웃음전도법 김문희 소장 (기독교웃음연구소)	열정적인 관계전도 최인수 목사 (공도중앙침례교회)		
15:00~15:20		휴 식		
15:20~16:00	작은교회이야기 태동화 목사(선교국)	목회자의 자세 박보영 목사 (인천방주교회)		
16:00~17:00	무릎으로 시작하는 목회 정경수 목사 (대전왕성교회)			
17:10~17:40				
17:40~18:00	격려사 금성대감독(삼남연회)			
18:00~19:30	석 식			
19:30~21:00	만남의 축복 눅19:1~10 임용택 목사(안양교회)	선한영향력 고후2:14~17 임용택 목사(안양교회)		

CONTENTS

- 06 _ 저녁집회1: 만남의 축복 (눅19:1~10)
- 08 _ 저녁집회2 : 선한영향력 (고후2:14~17)
- 10 _ 결단예배 : 박넝쿨의교훈(욥4:10~11)
- 12 _ 아침기도회1: 왜 다윗인가? (시편78:70~72)
- 13 _ 아침기도회2 : 이 일을 계속하라 (딤후4:6~16)
- 14 _ 강의1 웃음전도법
- 22 _ 강의2 작은교회이야기
- 27 _ 강의3 무릎으로 시작하는 목회
- 32 _ 강의4 다문화가정 중심 목회
- 38 _ 강의5 생태목회와 좋은 마을 만들기
- 41 _ 강의6 열정적인 관계전도
- 44 _ 강의7 목회자의 자세
- 50 _ 강의8 조별 나눔 및 소감발표
- 51 _ 강의9 목회와 정신건강
- 76 _ 참석자주소록
- 79 _ 강사주소록
- 80 _ 비전교회 함께하기 운동본부 조직

|||| 저녁집회1 |||||

사 회 : 원종휘 목사(만석교회/본회 총무)

조 용 한 기 도 다 갈 이

찬 송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다 갈 이

1.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은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창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써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2.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써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3.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써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4. 주님의 깊은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써 오늘도 임해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써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통 성 기 도 다 갈 이

성 경 말 씀 눅19:1~10 사 회 자

말 씀 【 만남의 축복 】 임 용 택 목사
(안 양 교 회)

찬 송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다 갈 이

1.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라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2.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3.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맘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4.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둔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통 성 기 도 인 도 자

축 도 김 진 호 감독

설교요약

|||| 저녁집회2 |||||

사 회 : 이광호 목사(도봉교회 /본회 회계)

조 용 한 기 도 다 갈 이
찬 송 458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다 갈 이

1.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차도 주가 즐겁게 하시리라 아침 해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가라 네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2.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로써 강한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가라 네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3. 네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가라 네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통 성 기 도 다 갈 이
성 경 말 씀 고후2:14~17 사 회 자
말 씀 【선한 영향력】 임 용 택 목사
(안 양 교 회)
찬 송 459장 (누가 주를 따라) 다 갈 이

1.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 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 가네 주만 따르네
2. 세상 영광 위해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 인해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 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 가네 주만 따르네
3.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 가네 주만 따르네

광 고 사 회 자
축 도 김 진 호 감독

설교요약

|||| 결 단 예 배 |||||

사 회 : 태동화 목사 (선교국/본회 협동총무)

조 용 한 기 도 다 갈 이

찬 송 496장 (새벽부터 우리) 다 갈 이

1.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익어 곡식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2.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3.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타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후렴)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기 도 말 은 이

성 경 말 씀 온4:10~11 사 회 자

말 씀 【박 넉쿨이 주는 교훈】 김 진 호 감독
(본 회 회 장)

찬 송 495장 (익은 곡식 거둘 자가) 다 갈 이

1. 익은 곡식 거둘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2.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3.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후렴)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광 고 사 회 자

축 도 김 진 호 감독

설교요약

아침기도회 1

이홍규 목사(큰믿음유신교회)

왜 다윗인가? 시편78:70~72

아침기도회 2

지성래 목사(예수사랑교회)

이 일을 계속하라 딤후4:6~16

강의I. 웃음전도법

김문희 소장 (기독교웃음연구소)



웃음전도법 세미나

웃음전도법
웃음세미나

웃음전도법 이란?

S **P** **P** **V**
웃고 기도하고 선물주고 찾아가기

S Smile 웃고
P Pray 기도하고
P Present 선물주고
V Seven Visit 알뜰한 찾아가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 28: 19-20)

웃음전도법 이란?

전도법
웃음세미나

1. 얼굴 전도지를 잘 만들어라

1) 여러분은 어느 얼굴이 좋으십니까?



[좋은 전도지]



[나쁜전도지]

웃음전도법 이란?

전도법
웃음세미나

2. 얼굴 전도지를 잘 만들어라

2) 전신갑주를 입고 전도하라



웃음의투구



유머의방패



감사의 검

웃음전도법이란?

전도법
웃음세미나

3. 꿈을 꾸고 그리며 전도하라

1) 꿈이 성취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2) 꿈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장애를 만나게 됩니다

3) 꿈을 꾸며 웃으며 전도하자.

웃음전도법이란?

전도법
웃음세미나

4. 꿈을 꾸고 그리며 전도하라

4) 꿈을 꾸는 단계

1단계: 전도에 꿈을 꾸게 하십시오.

2단계: 전도에 꿈을 그리게 하십시오.

3단계: 전도대상자를 작성하라.

4단계: 전도대상자를 위해 기도하라.

예수님을 만난 전도자가 웃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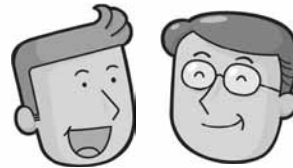
전도법
웃음세미나

1. 전도자는 웃고 전도해야 합니다.

1) 웃고 찬양하며 전도하자

2) 웃고 인사하며 전도하자.

- ① 먼저 본 사람이 직분을 떠나 인사하자
- ② 크게(술 톤)웃으면서 인사하자
- ③ 복수로 인사하자
- ④ 끝을 올리면서 인사하자



예수님을 만난 전도자가 웃습니다.

전도법
웃음세미나

2. 웃음전도는 함께 하는 것이다.

1)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갖고 전도한다.



하늘나라 스타되기 전도법

전도법
웃음세미나

1. 하나님이 인정하는 스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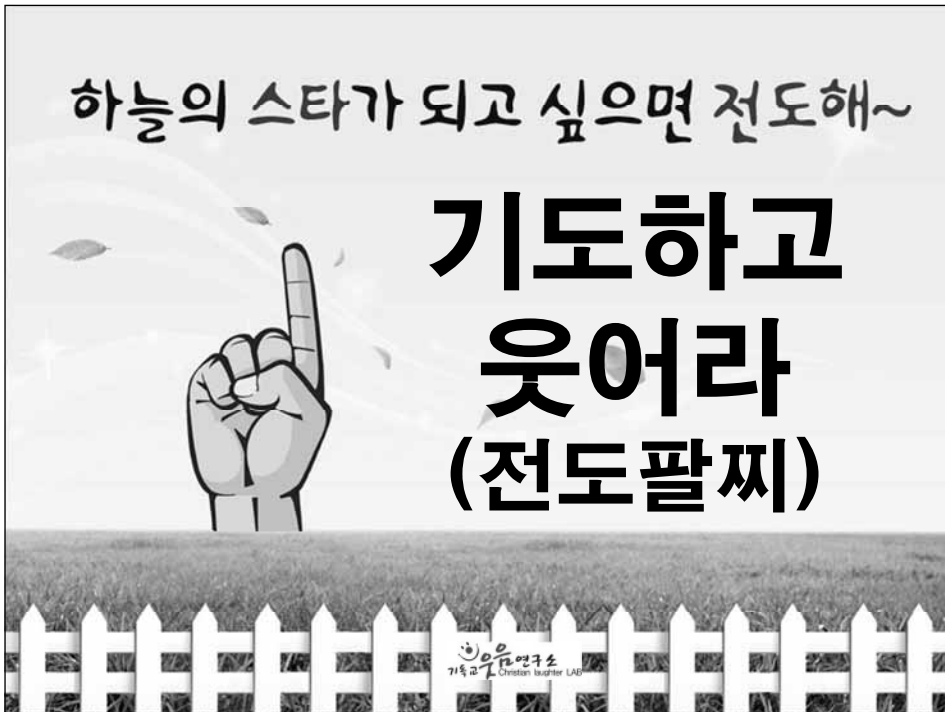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 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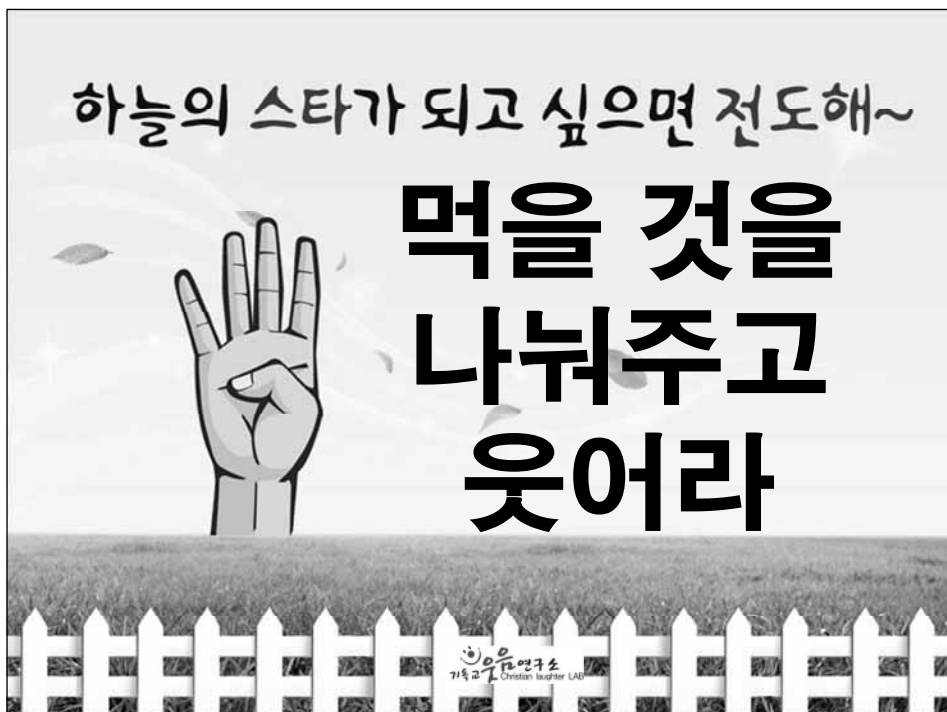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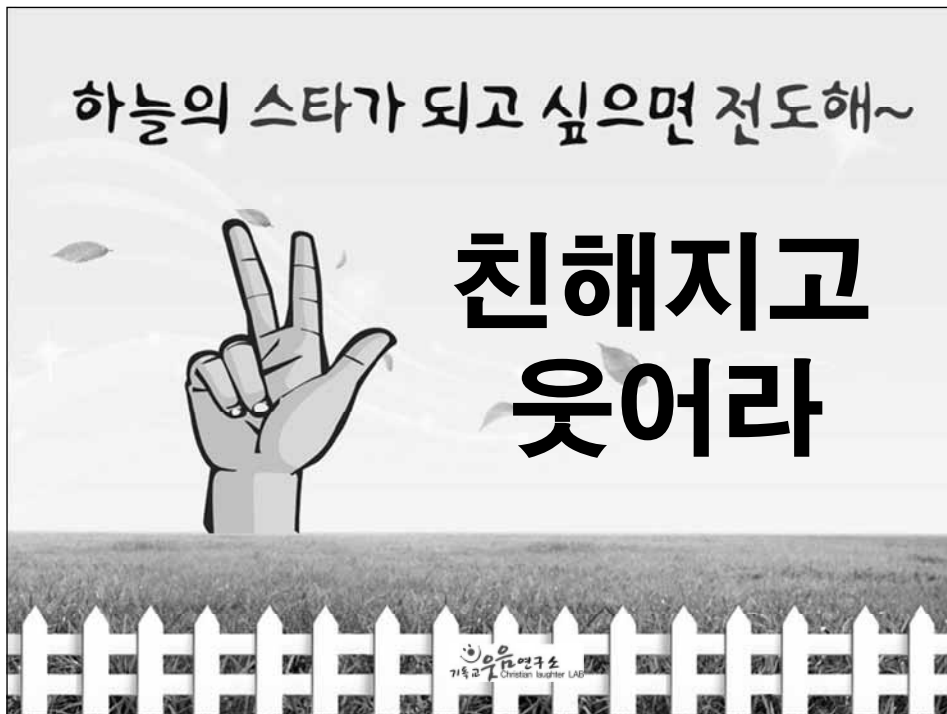
3과.하늘나라 스타되기 전도법

전도법
웃음세미나

2.하늘나라 스타가 되기 위한 원리









강의II. 작은교회이야기

태동화 목사(감리회 본부 선교국 총무 직무대리)

I. 들어가는 말

작은 교회들은 큰 교회들에 비해서 전도 중심적인 교회이다. 작은교회를 찾는 이들은 수평이동하는 교인들보다 불신자 혹은 오랜 동안 낙심하여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이들이 주로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큰 교회들은 관계 전도가 활성화 된 교회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신자들보다는 수평이동하는 신자들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작은 교회들은 나무의 싹뿌리 같은 역할을 하는 교회들이다. 그러므로 작은 교회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 교회의 전체적인 재생산 능력은 쇠퇴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작은 교회들이 살아야 교회가 살아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작은 교회들은 목회자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목회자들이 철저하게 준비되었을 때 작은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전체적으로 살아난다. 지난 달 선교국에서 출간한 개척교회 이야기 중에 목회자들의 준비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고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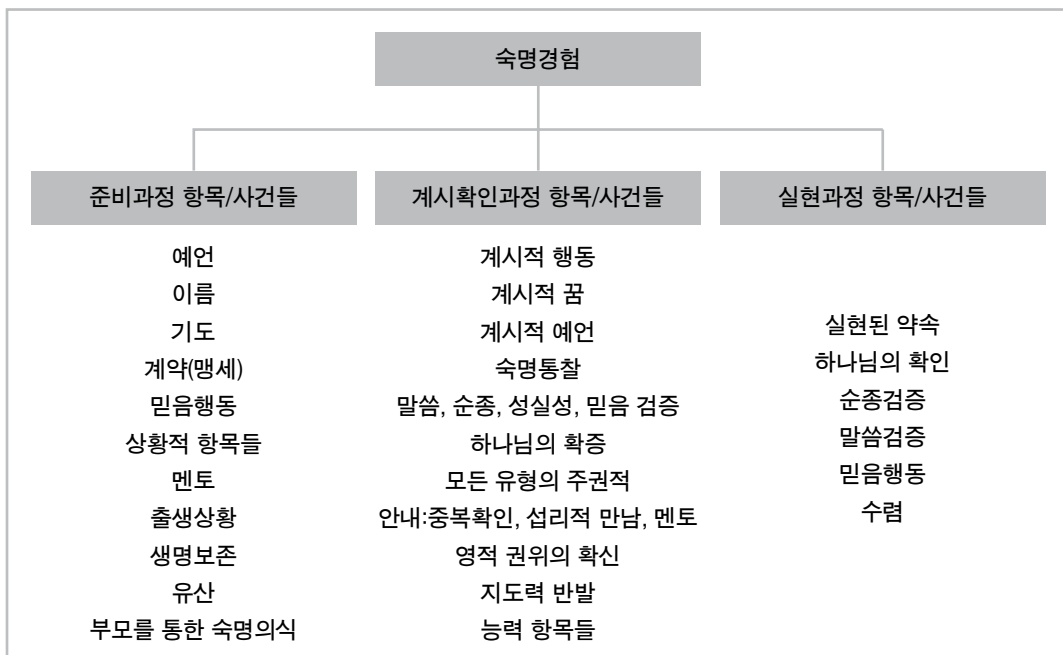
II. 본문

1. 담임목회자를 중심으로

1) 왜 목회를 하는가? (목회의 동기)

윌트 버텔슨은 성경에 나타난 숙명의식의 개념에 대한 심층 연구를 통해서 아래와 같은 숙명 경험의 세 가지 범주를 들었다.

숙명 경험에 대한 버텔슨의 세 가지 범주



※ 로버트 클링턴, 장남혁&황의정 역 '지도자평생개발론' 하늘기획 p.148에서 발췌

2) 목회를 통해 무엇을 할 것인가? (목회적 비전과 사명)

목회적인 소명을 발견하였다면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할 것이다. 미래에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그려주신 청사진을 목회 비전이라고 한다. 비전은 준비된 미래이며 예정이다. 비전이 없으면 현실에 만족하여 나태하거나 현실의 상태에서 좌절할 수 있다.

‘비전이 없으면 망한다’ (잠언29:18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는 말씀대로 개척교회들이 정체하고 있다는 사실은 교회의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잃어버린 이유이다. 생활이 궁핍하여 좌절하거나 아니면 개척교회는 안된다는 고정관념에 빠져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3) 목회에 합당한 그릇을 갖추었는가? (목회적 준비)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사역훈련을 하며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는 깨끗한 그릇’ 이 되라고 권면한다. ‘정결함’ 과 ‘합당함’ 그리고 ‘준비됨’ 은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다.

공동체를 비전으로 이끄는 힘을 지도력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목회자로서의 지도력에 대하여 미 연합감리교회 위스킨슨 연회에서는 연합감리교회의 장정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목회자 스스로의 평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와 다른 상황도 있지만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 매년 보고하는 목회자 보고서를 참고하며 스스로를 평가하는 도구가 될 것이다.

목회자 자기평가서(CLERGY SELF EVALUATION TOOL)

영적 인격적 감각(SPIRITUAL AND PERSONAL SENSIBILITY)

- 당신 자신의 개인적 신앙을 어떻게 기술합니까?
- 당신의 소명과 목회자로서의 위임으로 어떻게 설명합니까?
- 제도적인 교회를 어떻게 운영합니까?
- 당신의 목회와 목회지도력을 개인과 가족의 안녕과 연관하여 어떻게 증진시킵니까?

학문과 경력 배경 ACADEMIC AND CAREER BACKGROUND

- 우리 교단 안에서 나뉘어진 신학적 문제들에서 당신은 어느 것을 지지합니까?
- 목회적 소양을 쌓기 위해서 당신이 경험한 계속 교육은 어떤 것입니까?
- 성장 혹은 생산성이라는 관점에서 당신의 목회 지도력을 어떻게 기술합니까?

역량과 능력 SKILLS AND ABILITIES

- 당신의 교회 행정에 어떻게 참가하고 있습니까?
- 당신의 교회에서 어떻게 지도자들을 성장시키고 있습니까?
- 당신의 예배 스타일은 어떤 것입니까?
- 당신의 교회에서 어떤 전도활동을 이끌고 있습니까?
- 주중에 성경공부를 인도하고 있습니까?
- 당신의 교회는 부담금을 잘 내고 있습니까?

- 당신은 다른 사람들-목회자와 평신도들과 잘 협력합니까?
- 당신은 당신의 삶과 목회에 대하여 자기 평가를 실시합니까?
- 당신의 인간관계적 기술은 무엇입니까?
- 당신의 지역사회와 어떻게 관계합니까?(신앙공동체를 제외한)
- 당신은 어떻게 당신의 (1)영적 삶과 (2) 목회를 성장시킵니까?

4)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 (목회계획)

목회 계획은 목회비전과 사명에 이어 목회의 목표를 수립하고 어떻게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전반적인 틀이다. 그 틀 안에는 전략적으로 디자인한 하부구조와 상세하게 기록한 업무들을 포함한다. 그리고 목표를 규정하는 실행 계획과 구체적인 실행 단계, 시간계획, 비전과 사명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자원들로 구성된다. 그런데 비전교회의 가장 큰 자원은 무엇일까? 사람이다. 다양하고 세부적인 목회적인 프로그램들이 시행되는 데 필요한 많은 공간도 다른 자원도 없다. 그러나 전도지향적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고 전도해야만 한다는 긴 급성이 있는 목회자가 있다. 그러나 단지 목회자의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상자들의 영혼의 필요성을 위한 것이 전도의 동기여야 한다.

다음은 미국의 예이지만 준비된 목회자에 의해 개척되어 전 미국에 영향을 주는 교회의 사례이다. 먼저의 것은 연합감리교회에서 후원을 하여 파송된 개척자이고 다음 것은 교단의 지원이 없이 단독으로 개척한 예이다. 두 교회 공히 분명한 영적 비전이 있었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열정과 함께 목회계획에 일명 SMART 목표를 적용하고 있었다.

SMART 목표

Specific 구체적이어야 한다.

Measurable 측정 가능하여야 한다.

Attainable and Challengable 성취 가능해야 하며 도전할만해야 한다.

Relevant 더 큰 목표 또는 사명에 부합하여야 한다.

Time-specific 달성할 시간이 분명히 정해져야 한다.

1990년 캔사스시티 남쪽에 개척목사로 파송되어 현재 매주 출석인원 15,000명의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아담 해밀턴 목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 자기 목회의 기틀을 잡았다.

1. 사람들은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2. 사람들은 왜 교회가 필요한가?
3. 사람들은 왜 바로 이 교회가 필요한가?

교회성장의 요소

- ① 성경적 신학과 교회 정치제도
- ② 몸의 갱신으로 이어지는 영적 훈련의 존재와 실행,
- ③ 자신이 설교한대로 실천하고 회중들이 그 뒤를 따르는 영적이고 분별력있고 리더십의 은사가 있는 지도자
- ④ 영적이고 사역중심적인 평신도를 개발하는 교회
- ⑤ 교회성과 개선된 교회 건물
- ⑥ 충분한 재정
- +
- ⑦ 효과적인 목회 계획

그는 자신의 교회 개척 경험을 통해 효과적인 목회계획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효과적인 목회 계획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숙하고 무장된 성도들을 만들어 내고, 그들을 동원해 지역 사회에서 효과적이고 변혁적인 전도를 하고자 하는 단순한 과정을 기초로 개발된다”는 것이다. (랜디포프 저, 박주성 옮김, The Intentional Church, 랜디포프의 목회계획, 국제제자훈련원, 2009. P.49) 랜디포프는 아래의 질문들을 목회 계획의 핵심 질문으로 삼고 있다.

목회 계획에 필요한 핵심질문 10가지

1. 우리(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2. 그것은 하나님의 뜻인가?
3. 우리는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가?
4.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5. 우리의 비전을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
6. 누가 무엇을 하는가?
7. 우리의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 어떻게 교회의 구조를 이끌어 갈 것인가?
8. 우리의 사명을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
9. 우리가 비전과 사명을 성취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10.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과제에 대한 시간 계획은 적절한가?

그는 위의 열 가지 질문들을 가지고 목회 계획을 하고 첫번 실행한 일이 예배처소를 구하는 것이었다. 가장 어려운 일을 믿음에 기초한 헌신으로 추진한 그의 이 말은 한계에 부딪힌 목회자들에게 돌파구가 될 것이다.

“시도한 일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핵심적인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에 기초한 헌신과 우리의 삶을 통제하는 확신에 기초해 살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왕중의 왕되신 그분의 내주하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이다.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유일한 목표를 향해 존재하고 믿음에 기초한 헌신으로 움직여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라. 당신은 변혁적인 교회가 탄생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당신이 수립하는 전략적인 목회 계획의 초창기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더불어 믿음에 기초한 헌신을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에게 주어질 복을 누릴 것이다.”

III. 나오는 말

한국감리교회의 작은교회 문제는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다. 이는 수급정책을 비롯한 여러 부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부담금이나 특별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장년 목회자와 초기 목회자와의 시 각차이도 꽤 큰 편이다.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담임목회자의 소명의식과 목회적 열심이다. 아울러 이를 도울 수 있는 정책과 시스템 마련이 과제이다.

강의III. 무릎으로 시작하는 목회

정경수 목사(남부연회 ■ 대전유성지방 ■ 대전왕성교회)

조부 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하여 부모님이 감리교회에서 목회하셨고, 지금은 3형제가 감리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으며 아들도 신학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어렵게 목회하셨으나 정직을 인생철학으로 삼으신 분들이셨습니다.

아버지 따라 목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인줄로만 알았기에 어려서 부터 꿈이 목회자였습니다. 꿈대로 목회자가 되어 목회전선에 뛰어들었으나 부모님을 비롯한 어느 누구에게도 경제적인 도움이나 목회적인 후광은 기대를 못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목회적인 유산은 목회를 잘하려면 기도를 많이 하고, 누구에게나 미운 털 박히지 않도록 내가 섬기는 교회와 지방에서 성실한 사람이 되며, 그리고 누구에게나 무조건 사랑만 해주는 목회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1. 청소년 목회의 비전을 품기까지

신학대학 2학년 때 권사님 1가정과 동네아이들 몇몇과 함께 처음으로 교회개척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24년 전 11월 강원도 시골에서 할머니 교인4명을 모시고 정식으로 첫 목회를 시작하였습니다. 목사안수를 받은 후에는 지방에서 인정을 받아 섬기던 교회를 세워준 모 교회 은퇴하시는 목사님의 자리를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제법 큰 교회에서 18년 동안 한 지역에서 편안하게 목회하던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교회마당 은행나무 아래 의자에 앉아 아내와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디든 도시로 목회하러 갈만한 곳은 없을까? 그 지역에 일단은 학생들이 많고, 교인은 없어도 좋고 빈 건물만 있으면 이제는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평소 청소년과 어린이들을 위한 사역을 하면서 마음 속에 품게 된 비전 때문이었습니다.

2. 현 교회 부임초기 상황

은행나무 아래에서 꿈꾸던 그대로의 교회였습니다. 건물만 있고 교인들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낡은 교회 성물과 빗만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소문은 아주 좋지 않았으며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은 여기는 교회가 안 되는 곳이라면 오지 말라고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우기고서 온 기가 막힌 나의 목회현장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후회하며 울어보기도 하였습니다.

도시개발을 하고 있는 지역으로 35,000여명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지만 교회가 위치한 곳은 그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동네로 조금은 차별(학군, 사는 생활)이 있는 곳으로 빌라촌이며 바로 옆에 공단이 있는 관제로 6개월마다 교인 분포가 바뀌는 지역이었습니다. 한 동네에 교회가 60개가 넘고 하루 밤 지나고 나면 교회가 생기고 없어지고 하는 지역입니다. 또 하루 밤 지나고 나면 내 교회 교인이 저 교회가고, 저 교회교인이 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영적으로도 무질서한 지역이었습니다. 교파는 전혀 관계없으며, 단지 자신의 생각과 기호에 맞는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믿음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왜 하나님이 이런 곳으로 보내셨는지 조금은 원망도 하고 실의에 차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도하셨는지는 옮긴 지 1년 만에 그 섭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3. 어떻게 해야 목회를 잘하는 것인가?(기도와 사랑)

시골목회를 하다 도시목회를 시작하는 나에게 어떤 분은 도시로 나왔다고 출세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출세한 목사는 고민 반 근심 반이었습니다. 도무지 뽀족한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회 잘하시는 분들이 부러웠습니다. 지방에 어느 목사님은 처음 목회시작을 여기서 했다면서 이곳에서 성공하는 비결은 10년만 잘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제 아무데도 갈 생각 말고 여기서 교회만 잘 지키면 때가되면 부흥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매일 같이 한숨 쉬고 나에게 아내는 “당신도 다른 목사님처럼 세미나라도 좀 다녀오라”고 성화하였습니다. 그때마다 “내 방법대로 목회할꺼야!”라고 불멘소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다음에도 목회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답답하던 차에 혹시나 교인을 얻을까 하여 예전에 이 교회를 다녔던 분들의 주소록을 보고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 생각일 뿐, 2달 정도를 찾아 다녀도 그들이 만나주지 않아 포기하고 새롭게 교회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과연 새로운 방법은 무엇인가를 고민하다가 문득 아버지가 말씀하신 목회방법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기도다.” 제가 지금까지 해 왔으며, 다른 것은 할 수 없어도 지금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예전보다 기도시간을 늘려 하루 3번씩 기도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기도 중에도 가정이나 교회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고민이었습니다. 교단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도 부담되는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의 목회에 용기를 주시려고 때를 따라 까마귀 같은 사람을 보내주시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식당하시는 성도를 붙여주셔서 1년 동안은 한 식당에서 밥을 먹었고(후에 우리교회 집사님이 됨),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이 우리교회 앞 공원에 앉아서 추해보이는 교회를 바라보며 저 교회는 다시 색깔을 해야 하는데 하면서 종일대다가 마음에 감동이 와 자기가 교회도색을 자비로 해주었으며, 무더운 여름날에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청년을 통해 과일을 넘치도록 매일같이 받아 과일로 전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청년은 여름이 지나고 소식도 없이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더욱 힘을 얻어 365일 교회 문 열어놓고 “동서남북, 원근 각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우리교회에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옵소서!” 하고 아내와 오직 기도하는 것이 전부였는데 1년이 지난 뒤 교인들이 아이들 포함 25명 정도 모였습니다.

당회를 준비하면서 나를 이곳으로 왜 하나님은 보내셨는가? 스스로 자문자답하면서 두 가지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 하나는 교인들이 모인 것을 보면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으시며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신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신 분들 모두가 교회생활과 가난으로 인해 영육간에 상처가 많은 분들을 알고 이런 분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목회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자녀교육도 문제고 교회재정도 문제고 여러 가지로 힘든 가운데 제법 큰 교회에서 목회임지 이동 제의가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와!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구나 생각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아내에게 물어보았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아들의 말이었다. “아버지!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이런 곳에 보내시고 이만큼 성도님들을 보내주셨는데 조금 좋은 곳으로 가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아버지가 이렇게 목회하는 것을 보면서 아빠를 존경했는데~” 이 말에 더 나은 목회 환경으로의 임지 이동은 포기하였습니다.

4. 기도하며 내 나름대로 몇 가지 시도해보고 있는 목회방법들

1) 인상을 좋게 하자

주변의 교회와 지역의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 만들기 (좋은 목회자상, 좋은 교회상)

실천사항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하기, 애경사에 찾아다니기.

2)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자

찬송과 기도가 뜨거운 예배분위기 만들기

3) 미래의 비전을 선포하자

앞으로 10년 뒤를 바라보며 우리교회를 이런 교회로 세우고 싶다는 목회적이며 교회비전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여 선포하기(말 잘하기 보다는 지금까지 되어지는 교회이야기를 진실하게 전함),

4) 동역자를 보내주시리라는 확신 갖기

내가 목회하는 교회를 섬겨야 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는 믿음 가지기

(3번씩이나 교인들이 바뀌면서 교회는 체계를 잡아가게 되었고 담임목사를 돕는 교인을 보내주셨습니다.)

5) 내 교회 교인 만들기

(1) 보여주는 목회 - 목회자의 솔선수범과 사람을 키우기 위한 인내

저마다 상처를 안고 와서 하나같이 자기들을 위해달라는 교인들을 향해 교회를 위해 어느 개척교회목사나 다 하는 일이겠지만 목회자가 먼저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면서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하고 자 하는 자들에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일 중심 보다는 사람 중심적인 관심 속에서 교회의 모든 일은 독촉하지 않았습니다. 교인들이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으로 일에 동참하기 까지 인내로 기다렸습니다.

(2)유지하는 목회 - 갈등을 넘어 저주는 목회, 비전으로 이끄는 목회

교인들과 좋은 관계를 항상 유지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회를 섬기다 내 교회에 올 때에는 대부분 다 자기 주장이 강한 면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품을 방법은 오로지 저주는 것뿐이었습니다. 내가 옳아도 참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처리해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새로 섬기러 오시는 분들과 기존교인들과의 마찰도 대단하고 현재도 진행 중이나 끊임없이 비전을 심어줌으로써 어느 정도는 회복되었다. 그것은 끊임없이 서로 사랑하라는 나의 목회철학을 기쁘게 들도록 이야기 해주었고, 이것이 내가 잘되는 비결이며,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이며, 10년 후에 교회의 꿈인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이 모이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성도들에게 꿈을 심어주어 섬기게 한 것이 생각을 돌릴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세 가지 목회 비전

1)성도들이 축복받는 목회

2)방향하는 성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 하도록 돕는 목회

3)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 자녀들에게 좋은 교회를 물려주는 목회)

(3) 세우는 목회 - 평신도를 세우고

목회의 대를 잇는 목회

교회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목사를 도와 교회를 세워갈 자를 중직으로 세워가면서 특별히 마음에 두고 쓰고자

하는 자는 감리교 신학원에 보내고 전도사로 세웠으며 철저하게 담임목사의 철학을 주입시켰다.

***교회에 청소년 일꾼 세우기**

-학교 안가고 골목에서 돌아다니는 학생들을 데려다가 배고픔을 달래주고 시간 보내기

(우리교회의 꿈과 나의목회의 꿈을 이야기 해줌: 동참하는 학생들 -동료들을 데리고 옴)

놀라운 것은 공부잘한다고 하는 애들은 절대 안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교인 가정의 자녀들을 통해 교회에 친구들을 데려오도록 권면하였으며, 찾아오는 청소년들은 정말 다루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그들에게 지역사회에 필요한 하나님 나라 일꾼은 성직순이 아니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너희들이 세상에 왔으므로 너희들을 하나님이 분명히 크게 쓸 것이라고 격려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사회에 모범이 되어 정치, 경제, 사회에 주역이 되라고 가르쳤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교회에 왔다 가는 중에 학생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매주마다 풀어놓아야 하는 먹을거리들 (라면, 빵, 밥 등이 매주 필요하였으나 “교회가 작아서 이것밖에 못해줘서 미안하다. 나중에 더 잘해 줄게!” 말 한마디에 학생들은 오히려 감동하였습니다.

-청소년 목회에 관심을 두어 1년 중 6개월은 학생들을 모으는데 중점을 두고 제정부담을 주지 않고 여름수련회에 동참시켜 은혜체험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는 주변에 있는 교육인증시설인 창조과학관을 통하여 공부하고 봉사하게 하며 학교공부에 채워야 할 봉사활동 확인서도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함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데 1불신자 부모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은혜체험을 한 청소년들을 후반기 목회에 적용하였습니다. : 교회 찬양대로 세우며, 예배 PPT 제작은 물론 교회 환경도 꾸미고 교회분위기도 살리고, 추수감사절과 성탄절 준비를 스스로 하며, 부모를 초청하며 발표하게 하였습니다. 교회에 대한 소속감과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에 왜 필요한 사람들인가를 때마다 기회 되는데로 말해주며 용기도 주었습니다. 반면에 고등학교 남학생 중에는 때로는 학교를 안 간다고 하여 사랑의 회초리를 들기도 하였습니다.

-교회의 청년으로 자라는 학생들: 중고생들은 아동부 보조교사로, 청년들은 중고등부 보조교사가 되어 봉사하며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자로 우뚝 서있습니다. 그 중에는 군대 가서도 교회 걱정하며 틈만나면 서로 전화하며 교회 일을 돕는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뒤에서 하나하나 점검하는 목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50-60여명의 청소년 중 21세 이상의 젊은이 20여명이 집사로 임명받아 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회 뒤에는 헌신하고자 하는 남녀선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이들은 기도회 참여하여 기도하다가 청소년 비전에 같은 뜻을 품고 자원하여 섬기게 된 사람들입니다.

7. 교회 단합 및 화합이 중심인 연중행사들

*특별기도회는 없으나 매일 밤 9시에 365일 기도회가 있습니다.

*성경일독학교-서점에서 교안을 준비하여 사용합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10:30 -12:00, 12:00-1:00 함께 나누는 점심/찬교

*특별한 속회모임 갖기-오후예배를 속회모임으로 돌려 전교인이 교회 안에서 속별로 성경읽기 및 교제를 함으로 효과만점, 특별순서: 교회/속회자랑하기, 교회/속회비전세우기, 우리교회 미래모습그리기, 목사와 속회원에

게 편지쓰기, 마니또 행사 등(모든 순서마다 시상식 있음)

*속회별 요리경연대회 및 찬양경연대회

*전교인국내 성지순례-1년 1회 국내선교지를 돌아보며 지친 영혼과 육체를 새롭게 하는 기회

*전교인수련회-8월에 있는 행사로 믿지 않는 식구들을 초청하여 같이 참여함.

*아동부 가을성경학교-기존의 성경학교를 탈피하여 놀토를 이용한 아동부 성경학교:효과만점, 성경학교 준비는 여름방학 때에 있는 각종 아동부 캠프를 다녀와서 적용

*연말 전교인(새가족)만찬회-한해 동안 얻은 새가족과 전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점심식사를 나누며 교제

*중고청 여름캠프봉사활동, 1박2일 겨울캠프- 담임목사가 운영하는 캠프에 봉사

7. 결론

정말 전도도 할 줄 모르는 목사, 남 다른 재능도 없는 목사. 실력과 후광도 없는 목사가 목회를 잘해야 한다는 의지 하나로 한일은 무조건 인내하며, 성급하게 교회 일을 추진하지 않았으며, 일 중심의 목회가 아닌 사람을 세우는 목회에 초점을 두고 할 수 있는 한 이해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용서와 격려를 하려고 했으며, 무슨 말을 교인들에게 했든지 그것은 미루거나 덮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꼭 실행에 옮기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목회, 언제나 교회 오면 만날 수 있는 목회자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만의 노력으로 교회가 세워져가고 있는 것이 아니며 제 뒤에서 더 많이 기도하고 묵묵히 따라주는 아내, 지금까지 교회에서 단 한 번도 구설수가 없이 내 곁에 있어서 더욱 힘이 납니다. 그러나 사도바울의 말처럼 모든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교인들이 2부 3부 예배와 또 다른 더 좋은 목회현장을 꿈꾸고 있으며 어느 날 부터인가 부지런히 뛰어온 그 현장에는 교회의 선교봉고차량도 서 있게 되었고, 교회재정도 많이 채워져 필요한 것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강의IV. 다문화가정 중심 목회

박시현 목사 (월평장로교회)

1. 서론

도시에 있는 교회보다도 농촌에 있는 교회가 여러모로 어렵다. 더구나 우리사회로부터 소외된 이웃이 많다. 농촌은 갈수록 피폐해져가고 있기 때문에 소외 계층에 대해 보다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주지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선교대국이 되었다. 해외에 협력을 맺고 있는 교회가 많다. 선교사도 물론 많이 보낸다. 그러나 국내에 급격히 유입되고 있는 다문화 가정들에 대한 선교에는 무관심한 실정이다. 특히 농어촌에도 다문화 노동자와 가정이 많다.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 땅에서 더불어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농어촌 소형교회인 월평교회는 10명 미만의 미자립교회에서 이제는 60여명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는 다문화가정들을 도우면서부터 이에 호응하여 여러 모양으로 동참하고 도움을 주는 동역자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단을 초월하여 여러 교회하고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옷 등 생필품으로 나눔과 섬김의 운동을 해왔다. 이제는 해외선교 현장이 일부 국내 다문화 선교로 변혁이 요구되고, 이에 대한 올바른 선교전략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개 교회별로 교단별로 해외선교와 병행하여 국내선교에 새로운 전략을 세우기 위해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2. 국내 다문화가정 현황

국내 체류 외국인 141만 명(2011년)

외국인 근로자 71만 명(2011년)

결혼 이주 여성 이민자 18만 3,000 명(2011년)

국제결혼 인구 한 해 3만 3,300여 건(2010년)

국제결혼 가정 자녀 12 만명(2011년)

3. 다문화가정 선교 문제점

가. 이중 문화에 대한 어려움

다문화 가정에서의 어려움 중에 결혼 후에 직면하는 이중문화로 인해 소외감과 이질감을 겪게 된다. 현재 다문화 가정에서 더욱 문화적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는 상대방의 문화를 이해하거나 존중하지 못하고 다른 하나의 문화를 무시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민족주의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라는 문화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다문화 가정의 여성은 쉽게 배제되고 결국 자녀 또한 어머니의 문화를 수용하지 않으려는 힘든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질적인 한국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다문화 가정 여성은 한국문화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게 된다. 또한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의 이중문화는 긴장과 갈등이 발생하게 되고 가정 자체를 불안정하게 만든다. 교회공동체에서도 한국인 성도들과 문화차이로 멀시와 무관심의 대상이 되기 쉽다. 농어촌 교회는 노인들이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아 교인들과의 교제가 어렵다.

나. 가족 내의 갈등

결혼의 목적과 동기에 따라 가족 내에서 갈등이 야기된다. 국제결혼의 대부분은 배우자 찾기, 경제적인 목적, 종교적인 이유 등의 동기로 시작 되는데 이러한 결혼 형태는 한국 남성의 경우 외국 여성에 대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배우자 문제를 해결하고 외국 여성의 경우에는 경제문제를 결혼으로 해결하려는 목적이 결국은 부부관계를 원만하게 하지 못하는 문제를 낳게 된다. 또한, 위장결혼, 무단가출 등으로 인해 가족 해체의 문제가 지 야기되고 있다. 이혼과 별거 등 다문화 가정의 10% 가까이 해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농어촌지역 다문화가정 대부분이 남편들의 횡포로 교회를 못나가도록 억압당하고 있다.

다. 경제적인 어려움

대부분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인 노동자들에 비해 더 많은 작업 시간을 가지지만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착취당하는 경우가 많다. 초과 근무와 야간근무, 휴일근무의 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하는 경우가 많으며 노동자 급여의 일정부분을 지불하지 않고 회사가 유보하며 불법체류자는 이런 부당한 대우에 대응하지 못하고 일하게 된다. 또한 국제결혼가정의 경제적인 빈곤은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남편 때문에 농사를 생업으로 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노동능력이 없는 남편으로 인해 아내가 직업 현장이나 노동현장으로 내몰리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한, 많은 다문화 가정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맞벌이를 하게 될 경우 아이들이 돌봐줄 시간 자체가 부족하게 된다. 농어촌 지역 교회에서는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 못하고 있다.

라. 사회적인 적응문제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 이민자들은 한국사회에서 여러 가지 차별대우를 경험하게 된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나라에서 이주한 외국인들에 대해 대놓고 무시하며 욕설, 폭행을 하기도 한다. 사회적인 차이와 음식 등의 차이로 인해 오해를 사기도 하고 외국 이주자 또한 한국 사회를 받아들이기에 어려움을 겪는다.

국제결혼이주 여성들이 인종차별에 가부장적 성차별, 가난이라는 계층차별이 중층적으로 배가 되어 상처를 입고, 이주 노동자들 역시 불법화의 과정에서 초래되는 인권 침해의 문제로 고통 받고 있다. 농어촌 교회는 이러한 사회적 차별의식을 제거하여 사랑의 공동체 일원이 되어 주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구역모임과 셀모임 각종 교회행사에 왕따를 시키고 있다.

마. 다문화 가정의 자녀의 문제

다문화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외모가 다를 경우에 또래 아이들로부터 놀림을 당하기도 하며 성장해 가면 서 사회에서 차별을 당하는 경우가 있으며 소외를 당하는 것 이상의 집단 따돌림을 당하여 건강한 인격체로 자라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보건 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이 집단 따돌림을 경험한 비율은 17.6%로 나타났다. 집단 따돌림의 원인을 살펴보면 가장 큰 원인이 ‘엄마가 외국인이기 때문에(34.1%)’, ‘의사소통이 잘 안되어서(20.7%)’ 로 나타났다.

부모와 관련된 요인은 아이들의 노력으로 극복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심각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은 정체성 혼란을 겪게 된다. 다문화의 가정환경 속에서 대부분 어머니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문화를 배우게 되고 한국의 문화와 언어의 차이가 자기 정체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농어촌지역 교회에서 자녀들 역시 집단 따돌림 대상이 되고 있다.

4. 월평교회 다문화가정 선교의 실제

가. 동기

농어촌 지역 다문화 가정 수가 급격히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러나 대부분 외부와 단절된 채 가정집에 폐쇄되어 한국인들과 교제가 없고 교회에서도 무관심한 실정이다. 그래서 도시지역 다문화가정인 베트남 50명을 교회로 인도하고 베트남예배를 드리도록 한 경험으로 농어촌지역에서도 시도 하게 되었음

나. 다문화가정 선교준비

- (1) 영광군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에 한국어 지도교사로 교사 자격 취득함.
- (2) 교사로서 전후반기 4가정씩 2년간 16가정을 방문하여 한국어 지도함.
- (3) 다문화가정을 함께 돌볼 수 있는 동역자로서 농어촌 지역 기관장인 우체국장을 월평교회에 인도함.

다. 선교실시/결과

- (1) 2년 동안 50명 선교 (베트남 20명, 중국 17명, 몽골 9명, 필리핀 4명)
- (2) 농어촌 소형교회 시설 미비로 더 이상의 선교는 제한됨

라. 선교방법

- (1) 인도자에 대한 좋은 이미지와 신뢰심 형성

무엇보다도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며 체면이고 뭐고 무조건적인 관심과 사랑을 보여줌. 그들이 필요한 옷 생활용품 식품 등을 제공, 비싼 것이 아닌 콩 반쪽의 사랑이면 족함. 마음과 마음이 만날 때 무엇인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김, 먼저 인도자에 대한 신뢰심이 이루어졌을 때는 만사 오케이 새로운 다문화가정이 오면 기존의 다문화가정을 데리고 집으로 방문해서 자국말로 소통을 하며 애로 사항을 이야기 하고,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한국어 습득 등)를 이야기 하게 하며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 모색함. 먼저 전화번호를 나누며 필요하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언제나 전화하라고 안심시키며 집으로 놀러 오라며 다문화가정들이 모이는 곳에 데리고 와서 먹고 즐기며 허심탄회한 시간 가지며 서로 사귀는 시간 가짐. 어색했던 사이가 점차 친숙해지는 관계로 유도하는 단계임

- (2) 개인 애로사항 해결

병원사용, 직장소개, 주거장소, 출입국관리소 관련 제 문제 등, 특히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길 때 예수님을 소개 하며, 나또한 그랬다고 하며 나와 같이 해보라고 직접 본을 보여주고 불가능처럼 보이던 문제도 끝까지 해결해줌

- (3) 주변 사람들과 신뢰심 형성

먼저 신뢰심을 갖도록 최선의 노력, 나중에 교회로 인도 할 때 방해가 되지 않도록 관계유지, 시집과의 좋은 관계형성 유도, 시부모에 대한 예절, 생신 때, 명절 지내기, 병원 입원 시, 친척 간의 관계 형성, 남편 생일 챙겨 주기, 주변사람과의 관계 맺기 등 며느리로써 해야 할 일 알려주며 좋은 관계 유지하도록 함.

같이 사는 시부모님도 가끔 선물을 챙겨 직접 갖다 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줌. 가끔은 당사자에게 직접 선물을 시부모님께 갖다 드리라고 하며 음식도 싸주고 시부모님 생신 때 며느리가 아직은 음식을 못하므로 같이 식사대접을 하며 병문안도가서 기도해주고 하며 교회가 어떤 곳인지 느끼게 함 나중에는 고맙다고 하며 시부모 까지도 교회에 인도하는 계기가 됨

- (4) 매주 2회 정기적인 심방/가정방문

한국어 지도, 한국식단으로 요리법을 알려주며 식사준비와 긴급 시에는 인도자가 직접 조리하여 식사문제 해결, 한국말을 잘 못하는 노동자지만 빠지지 않고 나오는 성도들에게는 기거하는 곳으로 찾아가 복음을 전하며

한 사람 한 사람 성령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면 어느새 그들도 마음 문이 활짝 열려져 기쁜 얼굴로 자기들의 고민을 털어 놓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고 통역을 위해 같이 데리고 간 성도가 은혜를 받고 또 언제와요? 하며 가져간 다과를 먹으며 서로서로 말은 안통해도(베트남, 중국)같은 교회를 섬기는 지체들로서 정을 쌓아가고 있는 모습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시간임

(5) 한국문화 체험/지도

가보지 못한 관청과 공공시설, 문화 유적지 탐방, 지방 고유의 문화행사와 축제에 빠짐없이 함께 동행하여 참석하고 안내함. 반기 1회 정도는 도심지에 위치한 놀이공원과 대형 쇼핑센터 등에 가서 즐거운 시간 가짐

(6) 출산 시 친정엄마 역할

출산 시 직접 친정 엄마가 되어 산부인과에 같이 동행하고 돌보아 줌. 신생아에 대한 몸을 씻고, 옷을 입히며 예방 접종 등 필요한 한국식 육아 방법을 세심하게 가르침. 이후로는 엄마라고 부르게 됨

(7) 교회인도

교회 온다는 약속이 이루어졌으면 차량수송 지원, 당일에 전화를 안 받는다 할지라도 집에 찾아가 적극적 공격적인 인도함. 만일 남편과 같이 자고 있더라도 방문 앞에 기다리다가 같이 아기 챙겨서 같이 데리고 옴. 이전에 이미 형성된 신뢰심 때문에 남편도 뭐라고 못함. 기존에 있는 다문화 성도들에 미리 이야기를 해주고 더 가깝게 친숙하게 주일 만나러 교회 놀러와서 우리와 놀자고 이야기 하게 함

(8) 어린이 양육/ 돌봄

자녀 학교 선생님과과의 관계도 중요함. 엄마가 선생님과 소통이 안 됨으로 연락사항 등을 대신 전달 학교행사 운동회 등에 직접 참석해 사진 등을 찍고 학부모 모임에도 같이 나가 학부모 역할 감당함. 다른 학부모에게도 전도할 기회임. 교회의 좋은 모습을 선생님뿐 만 아니라 일반 학부모도 알 수 있도록 하는 좋은 기회임. 이런저런 소식을 남편에게도 알려줌 남편도 고마워하며 교회에 나중에는 같이 나오게 됨.

(9) 부부관계 회복노력

술을 먹고 아내를 구박하는 남편에게는 집으로 찾아가 기도해주고 때로는 엄하게 질책하며 실질적으로 도움을 줌. 반면에 이해 못하는 행정적 법적 문제를 해결 하여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면, 나중에는 눈치를 보며 부인이 이미 우리와 연결되어 교회에 참석 하므로 부인에게도 잘해준다고 하며 함부로 못함. 가끔 성질이 나면 교회 못가게 한다 하며 성질부리는 사람도 교회에 나와 자신의 아이들이 마이크 잡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며 대만족함.

(10) 가정별 예배 및 성경공부 인도

추도예배, 심방예배, 환자위문, 기타 어려움발생시 등으로 예배드리며, 주중에는 다문화 성도들이 다모여 성경 공부도 하며 한국식김밥, 김치찌개, 필리핀 만두, 베트남 쌀 등 맛있는 것을 해서 먹으며 믿음을 성장도록 함.

(11) 정기적인 헌옷 및 생필품 수집/나눔 행사

도시 대형교회 및 동기생 등으로부터 헌옷 과 생필품 등을 기부 받아 나눔 행사를 정기적으로 시행 함. 주일 예배후 계절에 맞는 옷을 다량 준비하여 골고루 나눠 줌. 헌옷을 입고 패션쇼도 즐기며 이건 네가 입어야 이건 누구 아이가 맞는다 하며 멋있다 이쁘다 하며, 즐거운 시간 갖고 맞는 옷도 식구별로 챙겨 가져가고 이제는 모든 다문화 가정 교인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 되고 있음.

마. 교회에서의 양육방법

(1) 국가별 구역 모임 (베트남구역, 중국구역, 몽골구역, 필리핀구역)

주 1회 구역장 성경공부와 지도자 교육, 주일 예배 후에 1시간씩 국가별 구역 모임

(2) 찬양 연습

찬양을 통한 복음제시(찬양가사를 설명해주며 직접 쓰고 아이들과 같이 배우며 집에서도 부르며 자연스럽게 익혀 예배시간에 특송 시간 갖게 하므로 소속감 고취)

몸 찬양(율동)을 통해 교회에 관심과 찬양에 접근 (화려한 의상 등을 입으며 관심유발)

(3) 성경 말씀과 이야기 들려주기

교육관에서 다과하며 자연스럽게 대화식으로 예수님을 알도록 함. 직분자 활용

(4) 초신자 교육

예배 순서와 그 의미, 설교 내용, 기도하는 법, 성경과 찬송가 찾는 법,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설명하며 암송하기, 헌금의 의미(강요하지 않음)

(5) 순교지 교회 등 타교회 행사 방문

(6) 성탄 이브 축제

다문화가정에서 국가별 음식 해 오도록 함. 국가별 민속의상을 입고 춤과 노래경연, 행운권 추첨 등 선물주기

(7) 성경읽기 유도

국가별 성경과 찬송가 비치하고 복음서를 모두 읽으면 상품시상

5. 미래지향적 다문화가정 선교전략

지금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141만 명의 다문화가족, 이들은 이제 우리 기독교계의 커다란 선교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해외선교도 중요하지만 한국에 와 있는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선교전략들이 앞으로 끊임없이 논의되어 나가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현재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고용허가제를 비롯한 법적·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고, 불법체류노동자의 감소와 결혼이주여성의 급증 등 내외부적인 환경이 상당히 바뀌어 새로운 선교전략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 모든 교회는 다문화 선교와 신학을 정립하고,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사회 속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미래지향적인 선교전략으로 다문화가정 복음화에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가.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자료를 통해 한국 사회 속의 다문화가정을 분석하고 적절한 다문화 전략이 고려되어야 한다.

나. 다문화가정 선교를 위한 성서해석을 정의의 관점에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함.

다. 농어촌지역 다문화 선교의 과제를 선정하여 다문화 가정을 중심으로 선교 현장 실무자와의 많은 대화와 교류를 통해 섬김과 나눔의 선교 방향을 제시한다.

라. 세계화를 통해 가까워진 세상 속에서 이주민의 차별에 주목한 후 소수자를 위한 사랑의 공동체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마. 이주 여성의 삶의 자리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후 다문화가정을 위한 ‘가족-시부모-친척-이웃 관계형성 모델’을 개발 실제적인 기독교 교육적 실천방안을 제시한다.

바. 다문화 선교를 위한 문화이해에서 다중문화, 사회관습 등을 존중하고, 관용과 공존의 종교윤리의 선교방식을 개발한다.

사. 세계 최대 네트워크 사용자를 보유한 SNS인 페이스북에 대한 네트워크를 통하여 동농간 도움을 주는 다

문화가정에 대상으로 선교적 활용해야 한다.

아. 도시, 농어촌 지역에 부합하는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하여 효과적인 셀교회 및 가정교회 모델을 개발하여 교회 상황에 적절하게 적용해야 한다.

4. 결론

교회가 이주민들을 잘 섬기고 적극적으로 선교에 나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다문화가정이 겪는 어려움을 공감하고 이민가족들을 가슴깊이 존중하고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필요하다. 도시교회와 농어촌 교회의 공동선을 위해 네트워크를 더욱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각 노회 단위, 혹은 도청 소재지 단위로 교회에 의존할 수 있도록 한다.

다문화가족들과 그들 주변 사람들의 복지에 지역교회가 관심을 갖도록 한다. 다문화가정들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차이를 존중하며 따듯이 맞이하여 교회 안에서 그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고향’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강의 V. 생태목회와 좋은 마을 만들기

이종명 목사(충청연회 ■ 온양동지방 ■ 송악교회)

모든 생명 하늘같이

1. 송악지역과 선교현장 이야기

충남 아산시 송악면 - 산마을, 면단위의 정체성과 공동체성이 강한 지역. 아산시의 상수원 지역(송악저수지), 리 단위 자연부락마다 집성촌 씨족마을, 인근(30분이내)에 천안, 아산시(인구 약90만)

1951년 11월 설립.

1980년~ 김영주목사, 농민교회로서의 정체성 확립-기독교농민운동참여, 공동체실험 운영, 교회가 지역농민과 제 참여(농산물직거래, 수세거부등)

1985년~ 이영우목사, 지역선교를 위한 물적, 인적토대-부지매입, 교육관, 선교원 설립, 청년과 평신도 지도력,

1994년~ 이종명목사, 지역친환경농업생명운동, 2000년 친환경농사연구회

(현 한살림송악지회)창립, 지역사회복지 프로그램(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사업)

2. 송악교회의 정체성

- 1) 지역을 섬기는 교회-농촌교회, 농민교회, 지역교회,
- 2) 생명을 살리는 교회-영혼구원, 생태신앙, 창조질서보존과 확대
- 3) 더불어 살아가는 교회-나눔과 섬김, 성도의 거룩한 교제와 친교

3. 선교의 방향

은혜로운 교회-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몸.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들이 성령충만하여 나누고, 섬기고, 봉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교회.

건강한 지역-지역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과 생명이 더불어 살아가는 동산. 성도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청지기 직분에 충실하여 지역 안에서 생명을 섬기면서 더불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간다.

복된 성도-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가장 아름다운 존재. 성도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인격으로 그 리스도를 닮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살아간다.

아름다운 세상-세상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창조하신 터전.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와 사랑이 세상에 실현될 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4. 2030년까지 발전계획 *2009년에 장단기발전위원회에서 세운

- ▶ 계획과 조정의 시기(2009년-2010년)
 - 〈 ‘송악교회의 꿈’ 공유, 조정, 토대마련〉
 - 교회발전의 전망, 방향과 내용에 대한 논의와 합의
 - 각 분야 전담사역자와 인적자원 배치와 교육, 훈련

- 건축준비위원회 조직과 건축관련 종합계획수립, 교회부지 확보
- * 교육, 사회복지선교분야 전담사역자 확보와 분야별 발전기본방향 수립,

▶ 기초를 다지고 세우는 시기(2011년-2016년)

〈물적, 인적 토대 가시화, 성장동력 확보〉

- 속회와 선교회 활성화를 통한 적극적인 전도활동
- 교육과 훈련을 통한 신앙교육 활성화(지도자를 길러내고 세우는 일)
- 사회복지선교영역의 심화, 확대(노인복지, 아동, 청소년복지사업)
- 성전과 교육관, 사회선교센터(어린이집, 지역노인센터등) 건립

▶ 지역사회를 향해 힘차게 선교하는 시기(2017년-2020년)

〈적극적인 선교, 지역사회를 섬기는 프로그램 시행〉

- 지역사회 종합복지사업을 정착
- 적극적인 복음화운동(다양한 부흥, 전도사업)
- 교회와 지역사회 지도자를 기르고 배치하는 일

▶ 다양한 신앙,생활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시기(2021년-2026)

- 분야별, 지역별 공동체 만들기
교육과 문화공동체, 장애인 섬김과 나눔공동체, 유기농 협업공동체,
노인 공동생활을 위한 공동체
- 지역을 넘어 공동체를 확산시키고 연대하는 사업
타지역 공동체와 연대, 네트워크 사업, 공동체훈련과 지원프로그램 운영

▶ 다음세대 지도력으로 넘어가는 시기(2027년-2030년)

〈평가와 재정비 그리고 새로운 전망과 계획〉

- 자료정리작업, 신학화 작업, 새로운 지도력과 공유하는 사업

송악교회의 꿈에 전 교우들이 깊은 공감과 동참, 그리고 협력과 조화를 이루어내고 교회의 부흥과 성장,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 건설을 위해 밀알 같은 일꾼들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행복을 누리기를...

5. 송악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지역사회선교사업

사회복지관 사업

송악교회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선교사업을 위해 1997년 송악면 역촌리 65-1에 200평의 대지에 90평의 나무건물로 지었다. 사회복지관에서는 유아보육, 방과 후 아동공부방, 예능교육과 지역사회문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송악골 어린이집

1992년 ‘사랑선교원’으로 개원하여 19회의 졸업생을 낸 유아보육기관. ‘믿음, 소망, 사랑’의 기독교정신과 ‘어린이 중심’의 아동복지정신, ‘자연과 더불어’의 생태적 감성교육정신으로 교육하며 “어린이는 천국의 씨앗”이 모토다. 유아교육 프로그램으로 4세 늘기뽀뽀반 9명, 5세 즐거운반 21명, 6,7세 행복한반 22명이 있고, 초등학교 방과후 공부방이 12명, 예능교육으로 피아노와 음악교실 약 25명으로 총 9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다.

농민선교위원회 사업

1998년부터 교회 안에 조직하여, 생명을 지키는 농사법을 연구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여 소비자들과 생산자들이 함께 나누는 사업을 진행해왔다. 2011년 현재 송악면 지역에서 유기농업으로 생산하는 농산물은 쌀, 잡곡, 야채와 과일, 그리고 유기축산이며 참여하고 있는 농가는 약 200가구 정도이다. 송악지역의 유기농 생산자 조직은 한살림 송악면지회이고, 송악골영농조합법인(콩나물생산가공포장) 겨레별골영농조합법인(벌꿀생산가공포장), 그리고 유기질사료생산시설이 있고, 자연부락별로 진행하는 생태농업과 테마마을 사업과 연결하여 우리 동네가 ‘생태농업지역’으로 발전하는 꿈을 진행하고 있다. 지금은 유기농위탁영농사업과 연구, 교육을 위한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가고 있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

송악교회 사회봉사부에서 1998년 7월부터 송악면내 독거노인, 취약계층가정에 음식을 나누어 드리면서 시작한 사업인데, 현재는 25가정에 매주 반찬을 지어 배달하고 있고, 주택보수사업과 요양보호사 파견사업으로 확대해가고 있다. 재정은 후원회비와 지자체의 후원금으로 충당하고 매주 약2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하고 있다. 개방형노인공동생활시설(노인센터와 요양시설)을 준비하고 있다.

아동복지

2004년에 마을회관을 임대하여 저소득층, 한부모, 조부모가정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돌보는 송악반딧불이지역 아동센터를 시작했다. 현재는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약 15명의 운영이사회, 10여명의 전문위원, 100여명의 후원회원이 참여하고 있고, 5명의 교사와 실무자가 일하고 있다. 학습, 문화예술프로그램, 인성교육, 그리고 급식사업을 한다.

교육사업

지역내 좋은 학교를 만들어가는 일- 친환경유기농업으로 생산한 지역내 농산물로 초,중등학교에 급식하고, 지역의 자연생태환경을 누리며 교육하고, 서로 긴밀하게 소통해간다.

지역의 초등학교 도서관을 지역민들과 학부모, 학교와 연결하는 문화공간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학부모지역 주민회의, 작가와의 만남, 영화감상실, 각종 동아리와 소모임...-생략

문화체육선교사업

문화선교사업으로 ‘풍물교실’과 ‘찬양교습’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어린이와 청소년들로 ‘광돌이축구단’을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송악에서 ‘지역’은 송악교회 선교의 장이며 동시에 유기적 삶이 이루어지는 공동체이다. 송악교회는 지역에서 주민들이 영육간에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일하는데 제안자가 되기도 하고, 소통의 장이 되기도 하고, 실천과 평가의 장이 되기도 한다.

강의VI. 열정적인 관계전도

최인수 목사 (공도중앙침례교회)

성 경 :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1. 교회 소개 (공도중앙교회)

* 공도중앙교회는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용두리 158-6번지에 소재하며 작은 소읍도시의 38년 된 교회로서 50여명의 성도가 출석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 5개월 전에 우리교회에서 바람바람 성령바람 전도축제를 하였습니다.

2011년 8월31일 부터 2012년 2월 5일 까지 5개월 동안 불신자 483명을 전도하여 등록시켜 현 출석성도가 533명으로 급성장하였습니다.

국민일보와 진돗개새바람전도학교 작은교회 살리기 시범교회 1호로 선정 되어 가장 최근에 한국 교회 안에 서 작은 교회도 전도하면 부흥할 수 있다는 실제적으로 본을 보여준 작은 교회 급성장의 모델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부흥시키지 못한 채 안주하며 착각 속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2. (5)개월 전 --- 장년 어린이 합하여 50명 출석교회

1) 5개월 - 483명 불신자 전도 —— 533명 출석 성도

- 50명 성도가 전도 축제 후 5개월 만에 (483명) 불신자를 전도하여 (출석성도 533명) 기적 부흥

어떻게 50여 명의 성도가 시골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하여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가져 왔는가?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나누고 은혜 받고, 도전 받아서 나도 , 우리교회도 전도하면 되는구나!! 이러한 복을 받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이제부터 전도하여 주님을 기쁘게하고,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야지!! 하는 결단이 서야 합니다.

저는 부흥사도 아닙니다. 그냥 순수하게 개체 교회 담임목사입니다.

3. 성령의 강력한 전도의 권능의 불을 받으라!!

- 단순하게 은혜만 받아서는 안된다.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구령의 열정으로 강력한 전도의 불을 받아야 한다.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전도의 무기를 갖게 하고 전도하는 능력으로 목회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삶을 살게 한다.

지치지 않는다. 열정이 일어난다. 전도가 쉽다.

재미있다. 저절로 된다

확신이 온다. 짜증이 사라진다. 전도의 부담이 없다. 전도가 행복하다고 고백한다.
영광스러운 일꾼으로 최고의 복 받는 성도가 된다.

** 성령의 불을 받으려면 사모하라. 결단하라. 지금까지 실패했던 내 방법을 빨리 내려놔라

직접 전도의 현장을 누비고 다녀라

----- (간 증) - 성령의 전도 불 받고 한동호씨 전도

따라하자 주여 !! 내게도 / 성령으로 / 전도의 불을 / 주옵소서 --

4. 공도중앙침례교회 전도와 부흥의 비결

1) 목표를 붙들여라 (숫자와 기간)

- 12월 말까지 4개월 동안 300명을 전도하라고 목표.
- 300명을 4개월 동안 전도목표를 받을 때 불이 임함.
- 흥분됨, 야 --- !! 우리교회는 350명의 성도가 된다.
- 첫 주에 12명을 시작으로 매주 마다 전도하여 등록을 시작 으로, 많게는 한 주에 43명까지 전도하여 등록을 시켰다.
- 전도가 10월에 초에 목표를 수정 11월 30일 까지 300명 전도, 12월 31일까지 400명 목표
- 드디어 11월 31일 312명 전도등록 목표 달성!!
- 이렇게 전도된 사람들은 99%가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를 전도한 것이다.
- 목표를 붙들여라 - 성령의 불이 임한다.
- 몇 명을 언제까지 전도할 것인가? - 이것이 목표다.
- 목표하면, 그냥 몇 명 - 한 30명 정도하면 되지? 이게 일 년인지? 평생 동안인지? 구분이 없었다.
- 목표는 -- 2011년 11월30일 까지 300명.

이 목표를 믿음으로, 순종하고 붙드니 뜨거운 불이 임함.

못해요 하거나, 곤란해요 -- 하면 못하고 곤란하게 된다.

목표가 두려운 것이 아니다. 부담과 짐이 아니다.

우리교회가 3개월 만에 출석성도가 350명이 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뛰고 흥분된다.

목표를 붙잡는 것이 이것이 축복의 기회다. 목표는 숫자와 기간이 있어야 목표가 된다.

숫자는 많게, 기간을 짧게 정할 때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목표를 이루기가 쉽다.

*** 목표를 붙잡으니, 이제 앞으로 전진할 수 있었다.

목표는 이렇게 우리를 움직이는 강력한 도전의식을 준다.

- 목사가 새벽기도 후 두 시간 이상 전도하라!!

- 목사가 전도 앞장 안서면 교회는 죽는다. 전도는 식어버린다

- 성도가 눈치보고 슬그머니 포기 한다 뒤로 빠진다. 놀고 구경하고 있다.

**여러분!! 전도 안하면 내게 화가 임하고 목회가 안된다. 부흥이 안된다. 복이 안 온다.

[고전 9:16] “내가 복음을 전할찌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라”

-전도는 부득불 -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하는 것

- 전도하지 않으면 -전도목표 붙잡지 않으면 -- 영적생활에 화가 있다는 하나님 말씀이다.

삶에 기쁨이 없고, 목회에 기쁨이 없고, 인생의 희망이 없는 것이 바로 화가 있다는 것이다.

*** 전도는 동기부여가 될 때, 집회 후에, 은혜 받고 도전 받았을 때 곧 바로 시작하라.

2) 단팔죽 집 전도로 당장 시작하다.

---- (간 증) 관계전도 / 자랑전도

** 야, 바로 이것이 구나 !!! 췌기를 박는 끝까지 포기 말고

-이렇게 한 명이 전도되어 지면 전도문이 열어진다.

그것을 성도들이 보고, 야 된다. 간증 듣고 나도 할 수 있다. 확신을 갖게 된다.

- 보통 실패원인 :작정기도 하고 - 3개월 D데이 정하고 훈련 받다가 다 식어버리고 힘 빠져서 도로 묵이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실패했다 - 우리교회가 이전까지 그랬다!!

기도는 그간 쌓여서 썩을 정도로 무지무지 많이 했다.

그러나 진작 전도는 안했다. 부끄러울 정도로 하지 않았다.

기도능력을 가지고 부득불 할 일인 전도는 진작하지 않았다.

목사님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축적된 영성과 능력으로 충분히 전도할 수 있다.

사실 현재는 그렇게 업 그레이드가 필요 없을 정도다.

그런데 계속 업 그레이드만 열심히 하면서 세월을 아깝게 보내고 있다.

그러므로 전도가 속에서 탄식하며 터져주기를 원하는데 안 터트렸다. 전도도 얼마나 갑갑했겠는가?

그런데 바람바람 성령바람 전도 축제를 통하여 터트려 주니 용암이 흘러나오듯이 전도의 불꽃이 터져 나오는 것이다. 주여, 우리교회도 터지게 하옵소서!!

나-가-라!!! 두려워 말고 나가라, 나갈 때 주님이 역사하신다.

(막16:20)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3) 나가라!!! 나가면 무조건 된다 !!

사람들이 요즘 전도가 안되요, 전도가 어려워요 라고 말한다. 하지만 정확히 말해서 전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전도를 못하는 것이지, 전도하러 나가면 준비된 영혼들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많이 있다.

- 우리교회는 전도축제 후에 교회가 전도중심의 교회로 교회체질이 변화되었다.

그래서 성도들이 70% 이상이 전도에 동참하고 있다.

전도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니 성도들이 변화되어 전도로 하나가 되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 교회를 섬기게 하셨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전도하는데 방관자, 무관심자, 훼방자, 노는 사람, 불평꾼, 구경꾼 없어야 한다.

전도에 적극 동참하고 헌신해야 한다.

4)먼저 목회자 자신이 변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전도는 담임목사가 앞장서야 교인들이 따른다.

- 다른 프로그램 30%이하로 줄여라.
- 외부로 나가는 일을 줄여라.
- 작은 교회는 생존의 문제다.

그러므로 사는 길은 전도하여 부흥시키는 길 뿐이다.

전도해서 양육시켜야 우리교회 일꾼 되고 안 떠난다.

이사 온 사람, 어디 큰 고기 한 마리 안 걸리나, 이러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져야 전도가 잡히고 교회가 산다.

매일 전도하라 - 전도의 불을 끄지 말라.

새벽기도 후 2시간 씩 전도하라.

전도는 기회다. 이러한 기회를 놓치면 가슴 찢는 후회가 온다.

새벽, 낮, 오후, 저녁, 퇴근 후, 주일 3시간

- 목사가 사령관이 되어 지시하면 성도들은 따라가야 한다.

**** 교회의 본질 = 영혼구원 = 전도 -- 전도안하면 타락,**

부패, 세속화, 시험, 싸움, 세상에 조롱거리

- 함부로 교회가 타락했다고 말하지 말라 -

자기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영혼구원하지 않으니 타락한 것을 모르니 한심한 것이다. 부끄럽고 추한 나의 모습을 발견한 것이다.

5) 수시로 교회로 데려온다.

---(간 중) 화요일 낮 시간에 데려온 김 자매 이야기

- 매주 수시로 불신자를 전도하여 데려온다.

전도는 주중 아무 때나 매일 데려온다 - 주일 만 데려오는 전도법이 아니라.

주일날만 데려오려고 하니 도망가고 놓친다.

핑계. 마귀약속 방해, 본인 변심, 가족의 방해, 생활습관 그러므로 시도 때도 없이 기회만 되면 목사에게 전화하고 그때그때 당장 데려온다. 택시타고 데려온다.

목사의 축복기도, 복음전과 영접, 등록하더라. (창 26:1-12)

불신자는 기회가 자주 있는 것이 아니다. 4개월 50명의 성도가 - 483명을 전도하여 부흥 된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다. 시도 때도 없이 데려와야 한다.

- 예배 부수 신설

- 주일1부 오전9시, 2부 오전11시, 3부 오후 1시30분, 4부 오후7시30분

- 수요일 1부 오전 10시30분, 2부 오후 7시30분

- 토요일 구도자 예배 오후2시)

- 목표를 다시 수정하다.

- 11월 30일까지 300명, 12월 31일까지 400명 상향 조정.

- 또 수정 12월 31일까지 500명 상향 조정

- 2012년 1,000명 목표 - 전도 이사 온 사람 많이 찾아오게 해서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모르는 불신자 전도다.

우리의 목표와 방향은 분명히 불신자 전도다!!

어른 가족 전도하니 어린이가 따라오고 어린이 전도하여 교사가 찾아가니 부모들이 나와서 등록하더라.

5) 나도 전도왕에 도전하리라.

우리교회는 12/4주일 --- 3개월 간 312명

1차 전도목표 달성하고 감사예배를 드렸다.

**** 작은교회살리기 시범교회(1호) 평신도 전도왕

1) 1호 공도중앙침례교회 - 이지은집사 축제 후 5개월 231명

(한 주에 혼자 평균 10명씩 전도 - 직장다님. 돈 벌어서 모두 전도비로 사용한다)

- 주보에 매주 기록하여 도전을 받게한다.

◆ 새가족 등록을 환영합니다!!

698 정재문,정가족(최인수)-임지현,정형준,이현우,강석현,강지민,이아휘

이루휘(이지은) - 임지현가족(성태순) - 이현우(이해강) - 이지우(이윤아)

- 주간 등록 계 : 18명 - 금년 등록 누계 : 356명

* 바람바람 성령바람 전도축제 후 현재 전도실적 현황입니다.

- 전도목표 *1차목표(9-11월 3개월 간) : 300명 *2차목표 12월31일까지:400명

1) 현재까지 전도 수 누계 : 370명 2) 목표대비: 달성

3) 전도우수자: 이지은(101명),이용선(52),최인수(34),성태순(30)

황규희(20),이윤아(14),배진주,장희정(13),소미순(12)남미영,조하라(8)

장해빈(7),노길홍,강은혜(6),이혜경,전다인(5),윤미정,정영주(4)

정정옥,배건휘,정순임,이길순,김다예(3),조지순,이해강(2)

김주경,오영찬,최경록,이충호,장혜민(1)

4) 전도축제 후(8/31 - 12/25) 매 주간 등록교인 수 집계현황

1주(9/4):12명 2주(9/11):20명 3주(9/18):23명 4주(9/25):25명 5주(10/2):43명

6주(10/9):29명 7주(10/16):29명 8주(10/23):20명 9주(10/30):41명 10주(11/6):15명

11주(11/13):9명 12주(11/20):21명 13주(11/27):24명 14주(12/4):7명 15주(12/11):11명

16주(12/18):21명 17주(12/25):40명

* 누계 : 370명 *

** 전도왕을 발표합니다!! - 11월 30일까지 전도를 많이 한 성도

*전도왕:이지은-상금50만원과 상패, *전도2등:이용선-상금30만원과 상패

*전도3등:성태순-상금20만원과 상패

- 전도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 한 번 물면 놓지 말라!! - 끝까지 영혼을 품고 전도합시다!!

- 전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 주님, 저 빈자리를 제가 채우겠습니다!!

- 불신자 전도의 모델교회가 됩시다!!

5. 관계전도로 도전하라!!

—— (간 증) —— 미장원 원장 전도

1) 우리 공도중앙교회 폭발적인 부흥 비법 - 관계전도다.

- 관계전도는 제일 쉽다. 가장효과가 빠르다.

특별한 훈련을 받지 않아도 할 수 있다.

단 시간에 누구나 할 수 있다.

지속적으로 평생 동안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가르쳐 줄 수 있다.

2) 관계를 맺으면서 전도 할 집을 찾아라 -

미장원, 식당, 과일가게, 빵집, 분식집, 세탁소, 부동산, 할인마트, 주유소, 문방구, 이발소, 핸드폰 가게, 이웃 집, 자녀친구 엄마, 거래처, 동료, 친구 등

- 관계전도와 자랑전도로 시작하라.

- 담임목사가 총 사령관이 되어 전도를 지휘하고 매일 점검하라. 불을 계속 불려라.

- 자신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모두 명단을 양식에 작성

- 그리고 그 명단을 정리해서 당장 만날 수 있는 사람부터 우선순위를 정하여 찾아가 전도했다.

- 즉시 해야 한다.

- A,B,C 구분 - 관계전도는 쉬운 사람부터

- 당장에 한다. - 매일 기도하고 체크한다.

- 목사가 전체를 파악하고 지시한다.

- 주 1회이상 전원이 참석하여 점검한다.

3) 찾아가라 - 대상자를 한 번 정했으면 포기하지 말라. 매일 찾아가라. 맨손은 절대 금물

**** [아이들 엄마 관계 전도 간증]

황집사 - 토요일이나 수요일 일찍 끝나면 친구 아이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오게 한다. 부모 보통 10명 쉽다. 맞벌이 엄마들 자녀는 최상이다. 간식을 준다. 집에 가서 자기 부모에게 자랑한다. 2번만 하면 부모가 감사 전화. 자연스레 관계 -반찬 만들어 한 번만 인사차 직접 가기고 그 집을 찾아가간다.

관계 맺는 일 간단하다.

—— 오늘 당장 시작하라!! 나가라!! 나가면 된다.

4) 구령의 열정

- 우리교회 전도왕 : 이지은집사 관계전도 열정 소개

자녀3명, 일한다, 체격외모 외소, 35세 주부

- 열정이다. 계속 나간다. 자기 물질 사용한다.

- 계란, 포도, 바나나, 빵, 떡, 수세미, 휴지 준비 수시로 찾아가는다.

수요일예배 후, 저녁시간에도, 금요일도 후, 퇴근 후

- 성도 중 전도자의 간증을 자주 예배 시간에 하게 한다.

— (살로만 통닭가게 주인 전도 간증)

6. 전도의 축복

지미카터 대통령의 고백 — 최고의 영광

- 1) 자기와 아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것
 - 2) 교회 담임목사님이 자기를 인정하여 항존직인 직분을 맡겨 주어 예수님을 위한 일을 평생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최고의 영광입니다.
- 모교단의 k교회 k목사님이 우리교회에 오시더니 떠오르는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지는 교회가 있고, 뜨는 교회가 있습니다. 전도하여 떠오르는 교회가 됩시다!!

- 1)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주님이 최고의 복을 주신다.
- 5,000원 심었더니 100만원 들어오더라.
 - 전도 좀 했더니 2달 만에 전국의 스타가 됐다. 3개월 도 안되어서 무명의 시골 목사가 한국교회에서 가장 인정을 받는 바람바람 성령바람 전도축제 주 강사가 되었다.
 - 작은교회살리기 시범교회 1호로 지정 됨.
 - 바람바람 성령바람 전도축제 국민일보 주관 300회 기념 사례발표 함.
 - 5개월 동안 전국교회 50여개 이상 교회 특별간증 및 전도 축제강사
 - 전국교회서 100여명의 목사님 사모님이 다녀갔다.
 - 2012년 1월 14일 중문교회 설교아카데미 학교- 침례교단, 1월 17일 예성교단(총회장:석광근목사)
목회자평생교육과정 및 목사안수대상자 영성훈련 - 700명 목회자 부부참석 전도특강
 - 2월 대신목회대학원 겨울학기 전도강의
 - 2월27일 작은교회살리기 운동 목회자부부세미나 강사 및 행사 진행 접수사무 주관(대전 중문교회 장경동 목사)
 - 3월 감리교단 신바람 목회자세미나에 강사초청 됨. (비전교회함께하기운동본부 주관. 회장 김진호 감독)
 - 3월 침례교단 작은교회 살리기 운동 세미나 강사
 - 대전에서, 안성에서 두 번 작은교회 목회자세미나 초청 받아 전도집회 함.
 - 지방회, 지역 기독교연합회 전도 집회도 여러 곳에서 강사 요청에 일정 잡혀 있다.
- *** 목회와 전도와 교회 부흥에 자신 감이 생김-전도가 보인다.

- 2)기도 응답이 바로 온다.
- ** 남편 구원 - 순종하고 10명 전도하니 남편이 스스로 등록
 - ** 이름모를 병이 치유
 - ** 새신자가 전도 동참 - 최고 좋은데 아파트 이사 해결
 - ** 새로운 직장이 열림
- 전도는 나도 할 수 있다. 우리교회도 된다. 하면 된다. —— 나가면 된다 !!
- 저희교회는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다.
- 아주 열악한 환경이다. 그러나 전도축제를 통하여 이제는 성도 70% 이상이 전도에 참여하고 있다.
- 그야말로 전도중심적인 교회로 한국교회에 영향을 끼치는 소망이 넘치고 저력 있는 하나님이 쓰시는 교

회가 되었다.

전도는 하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모델교회가 되었다.

우리는 5개월 만에 불신자를 전도하여 483명을

등록을 시켰다.(전도수 99% 불신자다)

향후 30년 후, 50년 후, 주님 오실 때 까지 교회의 본질의 사명을 감당하여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하고 존속되며,
계속적으로 불신자의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하는 교회로 세운다.

강의VII. 목회자의 자세

박보영 목사(중부연회 ■ 인천동지방 ■ 인천방주교회)

I. 서론

하나님의 종은 만들어 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택하여 광야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 광야의 훈련에서 비로써 하나님의 종들은 더러움을 버리고, 주님을 사모함을 배우게 됩니다. (모세, 요셉, 우리들)

II. 본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쓰실 종을 찾고 계십니다.

본론1) 하나님이 보십니다.

우리의 스쳐 지나가는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습니까? 코람데오!

본론2)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마19:16~30

부자관리의 이야기- 부자관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린 것 같았지만 하나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했습니다.

본론3) 훈련을 시작하십시오.

고전 15:31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딤후 4:7~8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III. 결론

고후 5:10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사도바울은 날마다 주님 앞에 설날 그날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도 사도바울처럼 그날,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었습니까?

강의VIII. 조별 나눔 및 소감발표

원종휘 목사(인천 만석교회/본회 총무)

1. 변화하는 현대 한국 사회에 비전교회들의 선교 대안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2. 고령화, 도시 집중적 사회에 접어든 시대에 세대 간 문화 차이에서 오는 갈등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가?
3. 사회 복지 확대, 사회적 기업을 비전교회 목회와 연계 방안에 대하여 함께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4. 비전교회 목회자(사모)로서 겪는 애환은 무엇이 있습니까?
5. 세미나 전반에 대하여 발전적인 의견을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6. SNS(예를 들면 facebook같은)를 통한 목회자 상호 나눔이 목회 현장에서 얼마나 필요한 부분이 되는지 자유롭게 나누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IX. 목회와 정신건강

최의현 박사(연세로토텐정신과 병원장)

1. 정신질환자와 더불어 사는 교회 공동체가 되자

정신질환이면서 귀신들림으로 가장 많이 오인되는 ‘정신분열병’ 환자의 가족들을 격려하고 환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단체가 있다. 이 단체 구성원의 다수가 기독교인이며 단체를 이끌어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고 목회자이다. 가족들과 환자들을 돌보면서 지금까지 지내고 있는 이들 신앙인에게 ‘그들이 귀신들린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도 아직도 이런 질문을 하다니 하는 다소 어이없는 표정을 지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정신과 전문의로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정신질환과 귀신들림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인 것을 생각하면, 아직 이러한 인식이 일반적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우리의 현재가 안타깝다.

흔히 귀신들린다면 이른바 ‘이상한 행동’ 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어떤 병적인 현상을 드러낼 것이라고 본다. 성경에도 귀신들린 자는 그러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그들의 병이 나았다는 성경구절을 접한다. 여기에서 ‘병(病)과 정신이상’의 원인은 귀신이다’ 라는 논리로 넘어가는데 이러한 논리는 냉정하게 잘못된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비위생적인 동네에서 이질이란 병이 많이 있다가 동네를 위생적으로 고치자 이질이 없어졌다는 말을 듣고 병의 원인을 ‘비 위생’ 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비 위생은 비록 병의 원인이기는 하나 이 원인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논리가 맞으려면 그 동네 사람은 모두 병에 걸려야 한다. 하지만 비위생적인 동네에서 비위생 뺀치게 지저분한 사람이라도 이질에 감염되지 않을 수 있다.

기독교인이 정신이상과 귀신들림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지 못하는 근저에는 지나친 ‘단순성’ 이 있다. 나타나는 결과의 원인은 오로지 하나여야 한다는 단순성이다. 하지만 병(病)과 정신이상 뿐 아니라, 대부분의 사회현상들은 다양한 원인이 서로 관계하여 어떤 현상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다. 정신이상이 아니면 귀신들림이고 귀신들림이 아니면 정신이상이라는 ‘이거 아니면 저거’ 라는 단순한 생각은 옳지 못하다.

기독교인이 정신이상과 귀신들림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 중의 하나는 ‘모호성을 견디지 못하는’ 조급함 때문이다. 이러한 성향은 비단 기독교인의 성향만은 아니다. 사람들이 모두 모호성에 대해서 불안해한다. 그래서 자신의 미래를 알려고 점을 보러 가는 것이다. 그런데 점보는 것과 거의 비슷한 방식을 목회자에게 요구한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이거 하나님의 징벌이 아닙니까? 영적인 문제인가요?’ 목회자는 질문에 확답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낀다. ‘글쎄요...’ 라는 목회자의 대답을 듣는다면 성도들은 목회자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다거나 실력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이러한 태도가 실은 더 문제이다. 목회자에게 분명치 않은 것을 분명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니까 목회자는 분명치 않은 것마저 ‘영적인 것’ 으로 취급하게 된다. 일부 목회자는 너무 자기 생각에 앞서서 문제를 너무 쉽게 판단한다. 그래서 치료받아야 할 많은 정신질환자를 귀신들렸다고 취급하고 병원의 혜택에서 멀어지게 한다. 귀신들렸다고 취급하되 병원에 가는 것을 허용하면 그나마 나을 텐데, 병원 가는 것이나 약물치료 받는 것을 ‘비신앙적인 태도’ 로 말하여 치료받아야 할 시기를 놓치게 되는 예가 허다하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모호함을 분명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우리를 사 망의 골짜기에 갈 수도 있고 비천에 처하다가도 풍부에 처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허용하셨다. 우리가 모호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분명한 답변’ 이 아니라 ‘믿음’ 과 ‘기도’ 로 지금의 상황을 끌고 나아가는 것 이다. 목회자가 ‘잘 모르겠군요. 같이 기도하면서 이 문제가 어떤 것인지를 함께 짚어지고 나아갑시다’ 라고 말할 때 실력 없는 목사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훌륭한 성찰을 지닌 교역자로 인정할 수 있는 풍도가 우리에게 절실하게 요구된다. 기독 상담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상담자는 확답을 제시하지 못한다. 함께 가다보 면 그 의미도 알고 용케 그 시간을 지나올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 내담자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동체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깨우쳐야 한다. 정신질환에 대한 의학적 연구는 상당 한 발전을 이루고 있으며 앞으로 뇌와 유전자의 연구가 발달할수록 훨씬 더 많은 이해를 가져올 것이다. 간질이 란 병을 귀신들림으로 오해하는 예는 요즘 거의 없다. 그만큼 사람들의 인식이 바뀐 것이다. 하지만 성경에 간질 을 귀신들림으로 기록된 예가 있다. 이러한 구절을 가지고 ‘간질은 귀신들림’ 이라고 취급했던 신앙인들은 이 제 그들의 해석이 틀렸다는 것을 안다. 어떻게 알았는가? 의학적 진보를 통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 게 된 것이다. 아직 정신질환을 귀신들림으로 혼동하는 많은 사람들도 의학의 발전과 사람들의 인식의 전환에 따라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게 될 것이다.

다른 질병과 달리 정신이상을 귀신들림과 동질로 취급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정신이상의 원인이 뇌 에 있어서 심리적 증상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환청, 망상, 관계사고, 조종사고, 불안, 우울, 폭력 및 충동성, 등과 같은 다양한 정신적 증상들은 마치 영적인 기운에 사로잡혀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것도 뇌를 잘 이해하 면 그렇게 이상한 것은 아니다. 주부들이 어떤 요리를 하고 맛을 보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게 된다. 음, 소금이 더 들어가야 하는데, 아차, 마늘을 안 넣었네! 어떻게 아는가?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 다. 정신질환자들이 그렇게 이상하다고 해도 정신과 의사들은 그들과 이야기도 하고 농담도 하고 싸우기도 하 고 그런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주부들이 제대로 되지 않은 요리를 맛보고 해결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다. 그 들의 한계와 제한을 안다면 비록 다른 사람들과 다소 ‘다를’ 수는 있더라도 그 영역 내에서 인간 대 인간으로 교류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신질환자와 더불어 산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회가 ‘건강하고 유능하다’ 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다. 교회가 계속 정신질환자를 귀신들림과 혼동한다면 그것은 교회라는 공동체가 ‘건강하지 못하고 지식적으 로도 부족하다’ 는 것을 드러낼 뿐이다. 물론 장애자와 같이 지내는 것이 말처럼 편하거나 자연스럽지는 않을 수 있다. 돈이 더 들기도 하고 시간과 노력도 더 들 것이다. 경제적인 것을 중요시할 때에는 장애자와 더불어 산 다는 것을 손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 계산적인 태도이다. 계산적으로 살아서 이득 본 사람은 돈만 벌었지 인간성은 다 잃는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다워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사람 과 함께 더불어 살아야하며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격이 다른 사람끼리 이해하며 살듯 이 나와 신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다른 사람과도 충분히 관계를 맺고 잘 살아가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진 정 ‘사람다워지는’ 것이며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재료는 사랑이다. 이 재료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이라 는 것을 누구도 의심치 못할 것이다.

*** 목회자와 성도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

1. 정신질환과 귀신들림에 대해 '이것 아니면 저것' 이라는 사고에서 벗어나자.
2. 목회자에게 영적인지의 여부를 물을 때 '모른다' 라고 대답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며, 목회자 또한 '모른다' 라고 말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자.
3. 정신질환자에게 충분한 치료의 기회를 제공하며, 신앙적인 이유를 들어가며 치료를 막지 말자.
4. 교회 안에서 더불어 사는 법을 익히며, 어려움이 있으면 전문가의 조언을 요청하자.

2. 빙의(possession)에 관한 짧은 생각

최근 들어 영화의 주제로 '빙의' 가 등장했다. 빙의(possession trance)는 나의 인격에 다른 인격이 들어와서 내 인격은 사라지고 다른 인격으로 대체되는 것 같은 현상을 보이는 것이다. 비슷한 단어로 황홀경(trance)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자신의 인격이 사라지지 않는다. 가령 영적인 존재에 내 안에 들어오는 것 같은 경험이나, 나와 교류하는 것 같은 경험에서는 내 인격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므로 황홀경에 속한다.

사람들 몸속에 다른 존재가 들어와서 '자리 잡는다' 는 생각은 상당히 오랫동안 인식되어온 생각이다. 구약 성경에서도 복술가들의 몸에 다른 영혼이 들어와서 말을 하는 상황이 기술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서도 귀신의 힘을 빌려 점을 치는 사람에 대해 기술되어 있다. 무당이나 점집에서 대부분 보이는 영혼의 말도 '빙의 현상' 으로 볼 수 있다. 그것이 정말 다른 존재인지, 다른 존재인양 보일 뿐 실은 자기 인격인지를 과학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우리들의 정서로 볼 때에도, 우리 몸에 다른 혼령이 들어온다는 생각은 오래 전부터 유지되어 온 우리 문화적 발상이다. 특히 죽은 혼령이 사람의 몸에 들어온다는 생각이 일반적이었다.

빙의 현상은 과학자들에게는 하나의 현상으로 이해되고 분석하거나 연구하는 과제로 삼을 뿐이다. 과학자들에게는 '다른 인격' 에 대한 관심이 없다. 그것은 증명되지 않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과학은 매사 그렇다. 과학의 가장 큰 맹점은 영적인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과학만능주의에 사는 사람들이 충분히 만족할 수 없는 이유는 영적인 고갈에 있다. 그런 의미에서 '빙의' 라는 주제는 사실 여부를 떠나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것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사실 기독교인은 모두 '황홀경' 을 추구하는 신앙인들이다. 모두 성령의 충만을 바라고 갈구한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향에 폭 빠져서 동동 떠다니기를 원한다. 그 말은 곧 내 자신의 인격을 포기하고 성령의 주장에 좌지우지되기를 바란다는 말이 되므로 빙의와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다. 물론 전형적인 빙의가 되려면 내가 성령 자체가 되어야 하므로 엄밀한 의미의 빙의를 바라는 것은 아니겠다. 또한 우리는 내 몸 속에 들어오지는 않더라도 천사가 내 옆에 있어서 늘 나를 지켜주기를 바란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우리 옆에 귀신이 있고, 사탄의 속이는 기운 가운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매우 혐오스럽게 생각한다. 게다가 귀신이 자기 몸에 들어와 있다는 판단이 서는 경험을 하게 되면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고 자기 평정과 자기 조절 능력을 잃어버릴 정도이다. 그러니 우리의 이러한 삶의 방식이나 굿하고 점보고 사는 방식이 전격적으로 다른 것은 아니다. 방식은 같고 다만 대상이 다른 것이다.

그런데 대다수의 신앙인들은 자기가 늘 요청하고 있는 성령의 충만과 악한 세력의 패배는 특이하게 느끼지 않으면서, ‘빙의’ 나 이와 비슷한 주제가 나오면 심하게 반발하거나 은근히 관심을 갖는다. 과도한 반응은 무언가 이유가 있다. 다양한 이유를 말할 수 있겠지만 ‘영적인 경계’에 대한 생각을 잠시 나누고자 한다.

사람들은 ‘경계’를 지우고 살아간다. 땅을 차지한 사람들은 경계를 그어놓고 집을 짓는 사람들은 담을 세운다. 건물 안에서도 파티션으로 경계를 만든다. 경계를 통해서 자신과 타인을 구분하고 자기 영역을 보호하며 자기만의 것을 확보한다. 사람 사이에도 경계가 있다. 신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경계는 바로 몸이다. 태어난 아이는 자기 몸을 자기가 만지고 사물을 만지는 것을 통해 ‘자기’와 ‘자기가 아닌 것’을 구분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것은 신체적 경계를 의미한다. 삼쌍둥이처럼 몸이 붙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신체적 경계가 뚜렷하다. 하지만 정서적 경계는 그렇지 않다. 흔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적당한 거리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 달라붙고 어떤 사람들은 멀찍이 떨어져 있다. 이는 ‘불편함’과 ‘편함’으로 이루어지는 거리이다. 이것은 정서적 경계를 반영한다. 이것이 유지되지 않으면 경계가 침범되는 것 같은 느낌을 경험한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과의 경계가 불분명하다. 그래서 자신과 남을 정서적으로 잘 구분하지 못한다.

이러한 구분의 개념을 영적인 것으로 확대해서 생각해보면 되겠다. 우리 모두에게는 영적인 경계가 있다. 그 경계는 실상 신체적인 경계보다 더 견고하다. 그러므로 웬만한 사람들에게서는 빙의나 황홀경의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경계를 늦추듯이 영적인 경계를 자의나 타의에 의해 늦추는 경우에서나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경계가 뚜렷하지 않다. 그런 사람은 흔히 말하는바 ‘영적인 유혹’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다. 실상 다른 사람보다 노출면에서는 비슷할 것이다. 경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자각하는 것이 더 심할 뿐이다. 우리가 누구의 속마음을 알 수 없듯이 영적인 경계로 인해 어떤 영적 존재도 내 마음을 알 수가 없다. 내 비밀은 탄로 날 수 없다. 하지만 속임을 당할 수는 있다. 내가 알기론, 정보통으로 불리는 일부 사람들은 남의 마음을 읽어내는 데에 탁월한 능력을 가졌다. 그런데 잘 따져보면 그들도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능력은 없다. 그럴만하다고 가정하는 능력이 좋은 것이다. 그리고 그 가정을 점검해보는 능력이 탁월한 것이다. 가령 어떤 사람이 누구를 좋아하는 느낌이 있으면 마치 다 안다는 듯 상대를 떠본다. 상대가 별 반응이 없으면 ‘아님 말고’하고 넘어가지만 정말 그런 마음이 있는 상대가 어떻게 알았나면서 나오면 속으로 ‘그럼 그렇지’하고 생각한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경계를 깨는 것은 반드시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허락 없이 어떤 세력도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물론 강도가 타인을 손상시키듯이 적군이 침범하듯이 우리에게 침범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것도 내가 ‘지는’ 경우에서만 그렇다. 우리의 일반적인 각성은 영적인 침범에 당할 만큼 무방비 상태가 아니다.

악한 것에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 여러디는 말과 섬세하다는 말은 공통어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연관성이 있다. 우리는 무자비한 방식으로 우리를 침범해 들어오는 어떤 영적 세력에 대해 막연한 공포를 갖고 있다. 어떤 이는 악하기 때문에 더 과민한 반응으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한다. 그런데 예수님은 조용히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 앞에 계신다. 언제나 착한 사람이 환영을 받는 법이다. 예수님을 마음에 초대하는 것은 기본 좋은 영적 경계의 느슨함이다.

3. 우울증(주요우울장애)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울증이란 기분이 울적하고 마음이 착잡한 상태이거나 눈물이 나는 경우를 말하는데 병(病)으로서의 우울증은 이러한 일반적인 우울증보다 더 많은 증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중간에 좋아지는 것이 없이 2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주요우울장애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울감이 없는 경우에도 진단기준에 따라 우울증으로 진단되기도 한다. 이 경우 겉으로는 우울감이 없지만 잘 확인해보면 실제로 우울증의 문제가 있다. 몸이 많이 아픈 경우와 건강증이 심해지는 경우에서 일부가 우울증으로 판명된다.

대부분의 정신과 질환이 그렇게 이해하듯 우울증도 복합적인 원인의 결과로 온다. 조금 간단히 생각해보자면 병의 원인이 몸에 있는 경우가 있고 마음에 있는 경우가 있다. 마음에 있는 경우는 처한 환경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기대보다 못한 결과로 실망할 때, 자신의 처지나 능력이 너무나 한심하다고 여길만한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등에서 나타난 우울증이다. 특히 환경변화가 있을 때 우울증이 생길 수 있다. 가령 이사를 하거나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을 하거나 결혼을 하는 등의 생활 변화에서 우울증이 찾아오기도 한다. 하지만 우울증은 몸의 원인에 의해서도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여성의 경우 생리를 전후로 해서, 임신과 관련하여, 그리고 폐경기와 관련하여 나타난다. 어떤 사람들은 우울함에 상대적으로 취약함을 갖고 태어나거나 아주 어린 시절에 취약성이 생겨난다. 몸과 마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원인은 서로 복합적으로 혼합되어서 결과적으로 우울증이 생긴다. 몸의 취약 요소가 유난히 강한 사람들은 우울증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찾아와서 왜 우울증에 빠졌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유를 찾지 못할 때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우울증은 환경 및 마음의 영향에 같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우울하게 된 어떤 심리적 이유가 있다고 봐야 하며 그 이유를 잘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우울증은 전형과 비 전형 우울증이 있다. 두 우울증의 양상이 서로 다르다. 우울증 진단기준에서는 9가지 증상 중에 5가지 이상이 2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우울증이라고 말한다. 이 9가지 증상은 다음과 같다.

① 우울한 기분이다. 거의 매일 지속되며 이는 스스로 슬프거나 공허하다고 흔히 느끼는 것이다. 하지만 눈물을 흘리는 식으로 남들에게 발견되기도 한다. 아이들이나 청소년은 이런 기분을 우울하게 표출하기보다 짜증내고 신경질 내는 식으로 드러낼 수 있다.

② 일반적인 생활 활동에서 흥미와 즐거움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이다. 주부의 경우 가사일은 물론이고 손 하나 까닥하기 싫고 재미있던 방송 시청도 시들해진다.

③ 체중이 크게 변동하거나 식욕이 변동하는 것이다. 너무 안 먹어서 체중이 빠지는 것도 해당되지만, 너무 먹어서 체중이 늘는 것도 해당이 된다. 전자의 경우 전형적 우울증상에 해당하고 후자의 경우 비전형적 우울증상에 해당한다.

④ 잠이 안 오거나 잠을 너무 많이 자는 것이다. 우울증의 경우 잠이 잘 안 오고 잠이 들어도 자주 깨는 경우가 전형적인 형태이다. 하지만 비전형적으로 계속 잠을 자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

⑤ 정신운동적으로 초조하거나 혹은 지체 즉 느려지는 것이다. 마음으로 인해 몸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행동이 느릿느릿해지는 것이 마음 때문이라는 것이다. 느린 게 전형적인 형태인데, 어떤 사람은 비전형적으로 불안 초조해 하면서 한 자리에 오래 있지 못하는 식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⑥ 쉬 피로하고 몸에 힘이 빠진 상태이다. 이 부분은 기분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몸 상태로 느끼는 것이다.

⑦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끼거나 적절한 수준보다 훨씬 더 크게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다. 사실에 비해 훨씬 큰 잘못을 했다고 느끼는 경우이다. 생활 속에서 자신이 보잘 것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야 일반적인 것이지만 여

기서 말하는 무가치감은 언급한 죄책감처럼 훨씬 과도하게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⑧ 생각하거나 집중이 잘 안되고 결정을 잘 못하는 것이다. 생각 자체가 느려져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생각이 느리면 그보다 빨리 돌아가는 주변 환경에 적절하게 부응을 못하게 된다. 우울증이 중대사를 앞두고 오는 경우가 흔한데 우울증 때문에 판단력과 결정력까지 떨어지게 되니까 이중적으로 부담을 짊어지게 된다.

⑨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죽음에 대한 생각과 자살에 대한 생각 그리고 자살 시도이다. 자살의 주제는 우울증이 아니더라도 폭넓게 다루지만 자살과 가장 많이 연결되어 있는 정신병리가 우울증이다. 죽음과 자살에 몰두한다는 것은 살아가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9가지 증상 중에서 5가지 이상이 2주 이상 있을 때 진단이 내려진다. 그런데 5가지 중에서 반드시 첫 번째 증상과 두 번째 증상은 둘 중 하나 혹은 둘 다 포함되어야 한다.

우울증은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 치료를 받는 수준에 차이가 있다. 진단기준에 들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우울 보다는 좀 더 심한 우울을 나타내는 경우엔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서 보다 적극적인 지지를 통해 회복될 수 있다. 진단기준에 들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담실이나 전문적인 조력자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증상이 중등도 이상인 경우 즉 9개 중에서 7~8개를 만족시키고 그 정도도 심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엔 웬만한 도움을 통해서도 우울증을 빨리 회복시키지 못한다. 그 때엔 병원에 가서 약물치료를 받아야 한다. 물론 상담의 도움이 필요한 수준에서 상담도 받고 보조적인 약물치료를 받기 위해 일찍 병원에 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최근 들어 여러 교회에서 기독상담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무척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교인들만 아니라 주변 지역의 우울증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돕는 일에 귀한 쓰임이 되고 있다.

우울증의 치료는 특성상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신체를 회복하는 치료이다. 적당한 운동, 햇빛을 잘 쬔 곳, 규칙적인 식사, 충분한 수면을 도와주는 것이다. 이것이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우울증의 증상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이오리듬이 불안정해져서 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리적 리듬을 정상적으로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규칙적인 생활로 리듬을 정상화시켜주면 우리 몸은 기분을 자연히 무난한 상태로 올리는 자정능력을 발휘한다.

둘째는 심리적 그리고 환경적 치료이다. 어떤 사람은 내적인 문제보다 외적인 문제가 더 큰데 그 때에는 환경을 정비해주어야 한다. 물론 금방 정비되지 않는 환경이 있다. 그 때에는 내적인 문제의 경우와 동일하게 심리적인 지지를 통해 심리적인 견고함을 복돋아주어야 한다. 우울증과 흔히 관련되는 심리적인 악순환 고리가 있는데 그런 점들을 차단하여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생각 체계를 다시 세워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약물치료이다. 냉정히 말하면 약물치료는 첫 번째 신체치료의 하나이다. 왜냐하면 약물치료의 치료 원리가 그렇기 때문이다. 약물은 절대로 기분을 상승시키는 약이 아니다. 우울증 약은 몸의 생리적 리듬을 정상화시켜주기 위해 개발된 것이다. 우울증이 생기면 우리 뇌 속에 생리적 리듬을 만들어내는 세로토닌과 노에피네프린이라는 중요한 물질이 줄어든다. 마치 저혈압과 같다. 그래서 약물을 통해 이를 조정하는 것이다.

치료의 효과 면에서 다행스러운 것은 우울증은 반드시 낫는 병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그렇게 쉽게 생각할 것은 아닌 것이, 재발이 많다. 우울증을 흔히 ‘마음의 감기’ 라고 하는데 감기 걸리면 기분만 아니라 몸이 말을 안 듣듯이 우울증도 기분만 아니라 몸에 영향을 준다. 그런데 ‘마음의 감기’ 라는 비유가 약 안 써도 적당히 낫는다는 점에 있어서도 공통적입니다. 우울증은 가만히 두어도 낫기는 낫는데 문제는 그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 감기처럼 빨리 낫지 않을뿐더러 후유증도 많다. 자살의 위험도 있다. 그러니 우리가 적극적인 상담과

지지, 그리고 약물치료를 하는 것은 안 나를 병이라서 하는 게 아니라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울증에 대해서는 잘못된 생각이나 편견, 오해가 많다. 제일 대표적인 것은 우울증은 마음 문제니까 마음만 고쳐 먹으면 된다는 것이다. 우울한 느낌 수준은 그렇지만 우울증은 그렇지 않다. 이미 몸에 병이 와서 생리적 리듬을 손상시킨 정도이기 때문에 마음 고쳐먹는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 죄책감과 관련된 문제를 안고 있는 우울증 환자나 그 주변의 사람에게서 갖는 또 하나의 편견은 이른바 ‘당해도 싸다’는 식의 파괴적인 태도 혹은 냉대이다. 우울증이 생기기 전에 중대한 실수를 하거나 그 전까지 제대로 사회적 구실을 못 한 경우가 있는데 우울증을 그에 대한 일종의 심판이나 결과로 보는 것이다. 마치 읍의 현재 상황을 그의 죄 탓으로 돌리는 것과 같다. 하지만 우울증은 그러한 이유에 대한 결과수준을 넘어서는 하나의 병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우울증은 신앙이 약해서 혹은 죄를 지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물론 그러한 문제가 몸과 마음을 더 약하게 만든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울증은 일종의 병이다.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비기독교인보다 감기나 암 발생률이 줄어들지 않는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의 육신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질병의 위험과 똑같은 타락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교회가 오히려 우울증 환자를 더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있어서 우려가 된다. 병원치료에 대해서 불신하는 것을 교회가 조장하는 것이다. 이는 기독교 정신과 정신의학적 접근이 마치 반대되고 서로 적대적이고 여기는 식이다. 상당 부분의 우울증은 교회의 공동체적 정신과 좀 더 전문화된 교회의 기독교상담실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 하지만 의학적인 도움이 꼭 필요한 수준이면 병원의 도움을 빨리 받도록 교회가 나서서 도와주어야 한다.

주변의 사람들을 도우려면 우선 우울증의 판별기준을 유념하여서 주변의 우울감을 갖는 사람들의 우울 정도를 판별해보는 것이 좋겠다. 정도에 따라 접근이 다르기 때문이다. 우울증에 빠져있는 동안에는 그들 안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다. 하지만 우울증이 좋아지면 스스로도 내가 왜 그런 식으로밖에 생각을 못 했나 그렇게 느낀다. 그러므로 우울증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경청해 주고 그 느낌 그대로 인정해주어야 한다. 선불리 “그렇지 않아요”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처지를 잘 모른다는 느낌을 준다. 그 느낌을 인정하되 또한 스스로 갖지 못하는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지금 이렇게 절망적이지만 이제 조금 지나시면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었나 할 날이 오겠지요. 그 때까지 이 부분을 함께 짊어지고 나갑시다.”라는 위로의 말을 건네주기 바란다. 그리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함께 해주셔야 한다. 함께 하라는 것은 옆에서 억지로 사람 괴롭히며 과격하게 운동시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같이 있고 조금씩만 더 독려하여 활동하게 하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게 하면 우울증은 본래의 기간보다 훨씬 빠르게 끝나게 된다.

정신과 전문의, 목회상담 전문가, 목사/ 연세대의 정신과 외래교수 (전공의 정신치료 사례지도)

(현) 연세로템 정신과의원 원장 /심리상담연구원 나무와 새 원장 (기독교상담기관)

한국목회상담협회 감독 /한국기독교상담심리치료학회 감독 /한국복음주의기독교상담학회 전문가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전문가

한국자살예방협회 정회원 (상담위원장)

서울여자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자문의

한국교회선교연구소(KOMIS) 전문위원

연세의료원 의료선교발전위원회 위원

(저서) 최의현의 정신병리 강의 (2008, 시그마프레스)

부록 I. 교회개척자 능력평가

장성배 교수의 교회개척형 리더십의 특징에 따른
‘교회개척자 능력 점검도구’ (Church Planter’s Ability Assessment)를 발췌하여 옮깁니다.

점검도구의 활용 방법

1. 각 문항에 대해 1에서부터 5의 점수를 부여합니다.
 - (1) 전혀 그렇지 않다.
 - (2) 그렇지 않다.
 - (3) 그저 그렇다.
 - (4) 그렇다.
 - (5) 매우 그렇다.
2. 각 항목은 5개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섯 점수를 합산하세요.
3. 각 항목 밑의 문항들의 합산에 대해 다음의 의미를 부여해 봅시다.
 - (1) 25-20 : 아주 좋다.
 - (2) 19-11 : 이 부분의 보강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과 노력이 필요하다.
 - (3) 10-5 : 근본적으로 이 부분의 문제해결을 위한 컨설팅이 필요하다.
4. 각 항목의 점수에 대해 개척자 부부는 서로간의 대화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3항의 방법대로 대처 계획을 세우세요.

이 점검도구는 자기보고식 평가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개척자에게는 자신이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고, 아내와의 팀 목회에서 서로 조율하고 도와야 할 부분에 대해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컨설턴트와의 만남에서도 세심한 부분까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I. 개척자의 목회적 능력

1. 기도/묵상/영성 ————— (총점)

- 1) 나는 항상 기도하는 생활을 한다.
- 2) 나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기도한다.
- 3) 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익숙하다.
- 4) 나는 기도를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익숙하다.
- 5) 나의 기도는 응답받는 때가 많다.

2. 전도 ————— (총점)

- 1) 나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여 자녀 삼기를 원하시며, 이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는다.
- 2)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확실히 믿어지고, 그 감격이 너무 커서,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다.
- 3)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자로 세우셨다고 믿는다.
- 4) 나는 실제로 매일 나가서 전도한다.
- 5) 실제로 자주 생활 속에서 전도의 열매가 있다.

3. 성경공부 ————— (총점)

- 1) 나는 1년에 2회 이상 성경을 통독하며,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있다.
- 2) 나는 성경의 전체적인 구조와 내용에 대해 알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
- 3) 나는 신앙의 초보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다.
- 4) 나는 신앙의 초보자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도록 지도할 수 있다.
- 5) 실제로 내게 성경을 배운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

4. 제자훈련 ————— (총점)

- 1) 나는 스스로 예수의 충성된 제자라고 믿는다.
- 2) 다른 교인들을 예수의 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교재와 체계가 있다.
- 3) 나는 실제로 사람들을 제자훈련하기를 힘쓴다.
- 4) 나는 모든 교인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 5) 내게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정말 예수의 제자로 성숙해 간다.

5. 소그룹운영 ————— (총점)

- 1) 나는 소그룹 중심의 교회론과 신학에 익숙하다.
- 2) 나는 전인적 소그룹을 운영하는 방법에 대한 여러 책을 읽었으며,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 3) 사람들은 내가 지도하는 소그룹에 모이기를 좋아한다.
- 4) 내가 지도하는 소그룹은 예배, 성경공부, 친교를 나누는데 익숙하다.
- 5) 내가 지도하는 소그룹은 '소그룹을 통한 선교와 전도' 방법을 잘 알고 있으며, 기꺼이 선교와 전도활동을 한다.

6. 예배 ————— (총점)

- 1) 나는 예배를 인도할 때 내가 먼저 예배자가 된다.
- 2) 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배자가 되도록 훈련하고, 그렇게 예배를 인도한다.
- 3) 나는 작은 공동체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 부지런히 연구하고, 실험한다.
- 4) 나는 교인들이 주중에 세상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치고 훈련한다.
- 5) 나는 교인들에게 삶 속에서 산 제사로 드리는 예배를 가르치고 훈련한다.

7. 설교 ————— (총점)

- 1) 나는 설교에 대한 신학적이고 실제적인 훈련을 받았다.
- 2) 나는 성경을 주해하고, 본문을 설교화하는 방법에 익숙하다.
- 3) 나는 설교를 준비할 때 ‘무엇을 설교할 것인가’ 보다는 ‘누구에게 설교할 것인가’ 를 묻는다.
- 4) 나는 내가 설교하는 내용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으며, 그 주제로 2-5회의 연재 설교를 할 수 있다.
- 5) 나는 내가 설교한대로 살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도 설교대로 살도록 인도하는 방법이 있다.

II. 개척자의 일반적 능력

1. 믿음으로 행동하기 ————— (총점)

- 1)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개척자로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다.
- 2) 비록 내가 개척하였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교회라고 믿는다.
- 3) 나는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부흥시키실 줄을 믿는다.
- 4) 나는 어려운 개척현실 속에서도 나의 기도예 응답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대와 소망으로 사역한다.
- 5) 나의 사역대상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도 하나님이심을 믿는다.

2. 교회성장에 대한 헌신 ————— (총점)

- 1) 나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건강한 교회는 반드시 성장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
- 2) 나는 교회의 성장을 하나님 나라 확장의 맥락에서 본다.
- 3) 나는 현상유지적인 목회에 빠지지 않고 영적, 관계적, 신앙적 성숙과 함께 수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한다.
- 4) 나는 정해진 기간 안에 재정적으로 자립하는 목표와 전략을 가지고 있다.
- 5) 나는 갑작스런 성장에 현혹되기 보다는 지속적이고 꾸준한 성장에 더 집중한다.

3. 비전을 현실화하는 능력 ————— (총점)

- 1) 나는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항상 미래를 향해 나간다.
- 2) 나는 교회의 비전을 극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 3) 나는 비전을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고, 그러한 능력이 있다.
- 4) 나는 교회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강하다.
- 5) 나는 한번 세운 계획은 꼭 실행하고자 한다.

4. 주위 지역사회의 필요에 민감 ——— (총점)

- 1) 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역사회를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하다.
- 2) 나는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겨야 한다는 성서적 근거와 신학적 틀을 갖고 있다.
- 3) 나는 지역의 문화를 이해하기위해 노력하며, 수시로 지역의 필요를 정의하고 분석한다.
- 4) 나의 목회 철학과 사역은 지역의 필요에 맞추어져 있다.
- 5) 지역을 섬김에 있어 교회의 입장에서 보다는 그들의 필요 중심으로 사역을 개발하고 있다.

5. 비교인에게 다가가는 능력 ——— (총점)

- 1) 나는 비교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자 한다.
- 2) 나는 비교인들의 심리와 정신구조를 이해하고 있다.
- 3) 나는 비교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화하는데 익숙하다.
- 4) 나는 비교인들이 겪고 있는 개인적, 가정적, 그리고 직장 사회의 위기들을 다룰 줄 안다.
- 5) 나는 비교인들의 방법으로 그들과 교제하는 많은 방법을 알고 있다.

6. 좋은 인간관계 만들기 ——— (총점)

- 1) 나는 개인적인 관계로 사람들을 알아가는 것이 즐겁다.
- 2) 나는 사람들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용납한다.
- 3) 나는 사람들의 필요와 관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한다.
- 4) 나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동정을 표현한다.
- 5) 나는 사람들과 삶을 나누기 위해 되도록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7. 사역의 주인의식을 창조하는 능력 ——— (총점)

- 1) 나는 개개인의 비전을 교회 전체의 비전에 연결시킴으로써 사람들이 교회의 비전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도록 이끈다.
- 2) 나는 교회가 사람들의 필요에 응답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사역에 참여하도록 한다.
- 3) 나는 위임을 통해 사람들을 동역자로 세움으로써 그들이 사역의 주인의식을 갖게 한다.
- 4) 나는 팀 사역에 익숙해서 사람들이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시너지를 창출하도록 이끈다.
- 5) 나는 실현 가능한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사람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동참하도록 한다.

8. 사람들의 은사를 활용하는 능력 ——— (총점)

- 1) 나는 은사 공동체로서의 교회에 대한 성서적 신학적 근거를 갖고 있다.
- 2) 나는 다른 사람들의 은사와 달란트를 파악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 3) 나는 사람들의 은사를 목회 사역들에 연결하며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 4) 나는 모든 성도들을 활용함으로써 소수의 사람들에게 과도한 업무가 주어지지 않도록 한다.
- 5) 나는 사람들이 자신의 열정과 은사에 따라 사역하게 함으로써 기쁨으로 사역에 동참하게 한다.

9. 배우자의 협력 ————— (총점)

- 1) 우리 부부는 목회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
- 2) 우리 부부는 그 비전을 성취하는데 서로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동의가 되어있고, 팀워크가 좋다.
- 3) 우리 부부는 사역과 아이들을 양육하는 일 사이의 관계를 현명하게 조절할 줄 안다.
- 4) 우리 부부는 건강한 가정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 5) 우리는 가정을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규칙들이 있으며, 가정의 사적 영역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 개발되어 있다.

10. 스스로 동기부여 하는 능력 ————— (총점)

- 1) 나는 더 잘하려고 하는 바람과 탁월함을 향한 헌신의 사람이다.
- 2)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더 많이 일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 3) 나는 솔선하는 태도와 도전 정신이 강하다.
- 4)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 일을 추진해 가는데 있어서 지구력이 강하다.
- 5) 나는 무에서 유를 창출하려는 의지로 충만해 있다.

11. 융통성과 적응력 ————— (총점)

- 1) 나는 세상과 교회의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고백이 있다.
- 2) 나는 교회성장을 위한 다양한 실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 3) 나는 다양한 환경 속에서 내 방법만 고집하지 않는다.
- 4) 나는 늘 변화를 향해 열려있다.
- 5) 나는 교인들에게도 이러한 변화에 대처하도록 교육하고 이끈다.

12. 신속한 회복력 ————— (총점)

- 1) 나는 지금의 고난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한다.
- 2) 나는 일순간의 패배가 인생의 끝이 아니라고 믿는다.
- 3) 나는 나의 계획이 무산된 때에도 좌절하지 않고 또 다른 길을 모색한다.
- 4) 나는 성공과 실패의 파도를 탈출 안다.
- 5) 나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을 지킴으로 신속한 회복력을 유지한다.

부록 II. 교회학교 활성화를 위한 자료

※ 4차 세미나에서 나온 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청소년사역을 위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자료를 제공해 주신 이용환 국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14세~25세)

한국형청소년성취포상제(09세-14세)

**차세대 선교 및 교회학교를 활성화하고
교회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합니다!**

I.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개요 및 현황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The Duke of Edinburgh's Award)

14~25세 사이의 청소년들이 봉사, 신체단련, 자기개발, 탐험활동을 통해 잠재력을 개발하고, 청소년 자신 및 지역사회와 국가를 변화 시킬 수 있는 삶의 기술을 갖도록 하는, 전 세계 135개국에서 운영 되고 있는 국제적인으로 인정된 자기성장 활동 목표 성취에 대한 포상제도

□ 전 세계에서 인정합니다!

- 1956년 영국에서 필립 쇼(에딘버러 공작, 엘리자베스 2세 부군)에 의해 처음 시작되어 2011년 135개국에서 실시-현재 61개국에서는 국가 주도로 실시(국가 포상 권위)
- 세계 100대 대학으로 선정된 캠브리지 대학, 옥스퍼드 대학교, 토론토 대학교,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멜버른 대학교 등에서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민족사관고등학교, 국제중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공립)고등학교 등이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감리교회 청년·청소년부가 새롭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들의 자기개발과 진로(진학 및 취업) 모색에 활용할 수 있는 국제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받을 뿐만 아니라 차세대 선교 및 교회학교를 활성화하고 교회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데 효과적입니다.
- 각급 교회 및 기관, 계통학교(70개 중고대학교) 협의회와 군선교회 등 각 선교 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포상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2007년도 영국 금장 수상자 포상제에 대한 효과성 설문조사 결과

- 87%가 포상활동이 끝났어도 그와 관련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함
- 61%가 포상활동이 끝났어도 계속 자원봉사자로 활동
- 93%가 취업과 진학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함
- 64%가 직장을 얻는 데 도움을 받았음
- 83%가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보다 잘 알게 되었음
- 85%가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었음
- 79%가 리더십을 배울 수 있었음
- 78%가 의사결정능력이 증진되었음

□ 제도특성

- 활동기록의 신뢰성 및 공정성으로 활용가치 높음
 - 포상심사 과정 단계화로 신뢰성 확보 : 포상활동담당자 → 포상담당관 → 포상심의관 → 포상감독관 → 포상위원회
 - 활동기록부 자체의 포트폴리오 화 : 뚜렷한 성취목표와 계획 그리고 실행 및 성취과정들의 기록과정이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도록 기록되고 평가 됨
 - 온라인 기록 관리로 신뢰성 확보 및 활동 포트폴리오 제공 및 증명서 온라인 발급 가능
- 글로벌 리더 네트워크 형성
 - 135개국의 청소년 및 지도자들의 국제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있으며, 세계 같은 연령대의 글로벌 청소년 리더들과 함께 생각을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됨
 - 매년 국제교류 국가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시도별로 외국 국가들과 매칭 순환 교류 시켜 나갈 예정임

□ 제도 현황

- 기본이념 : ①비경쟁성 ②평등성 ③자발성 ④융통성 ⑤균형성 ⑥단계성 ⑦성취지향성 ⑧지속성 ⑨과정중시성 ⑩흥미
- 세계 포상제 시행국가(2011년)

계	유럽·지중해·아랍 지역	아프리카 지역	아시아태평양 지역	아메리카 지역
135개국	45개국	28개국	30개국	28개국

□ 제도 개요 및 포상 요건

- 참여 연령 및 포상 단계
 - 참여 연령 : 만 14 ~ 만 24세
 - 포상 단계 : 동장(6개월), 은장(6~12개월), 금장(12~18개월)
 - 포상활동 영역 : 봉사, 신체단련, 자기개발, 탐험, 합숙(금장 단계)
- 포상활동영역
 - 신체단련활동 : 신체 단련을 통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활동
 - 봉사활동 : 타인과 지역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
 - 자기개발활동 : 개인의 관심 분야를 배우고 익히는 활동
 - 탐험활동 : 자연을 통해 도전정신과 환경의 소중함을 깨닫는 활동

- 합숙활동 : 새로운 사람들과 가치있는 목적을 공동으로 이루는 활동

구 분	봉사활동	자기개발활동	신체단련활동	탐험활동	합숙활동
금장 16세 이상	12개월 48시간 이상 (48회 이상)	12개월 48시간 이상 (48회 이상)	12개월 48시간 이상 (48회 이상)	3박 4일	4박 5일 ※ 금장 단계 한함
	은장을 보유하지 않은 자는 봉사, 자기개발, 신체단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추가로 6개월 수행				
은장 15세 이상	6개월 24시간 이상 (24회 이상)	6개월 24시간 이상 (24회 이상)	6개월 24시간 이상 (24회 이상)	2박 3일	-
	동장을 보유하지 않은 자는 봉사, 자기개발, 신체단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추가로 6개월 수행				
동장 14세 이상	3개월 12시간 이상 (12회 이상)	3개월 12시간 이상 (12회 이상)	3개월 12시간 이상 (12회 이상)	1박 2일	-
	참가자는 봉사, 자기개발, 신체단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추가로 3개월 수행				

○ 포상 요건

- 포상단계 별 활동영역 모두를 정해진 일정기간 이상 활동하고 각 활동 별 성취목표를 달성하면 국제적인 포상을 받게 됨
- 활동 영역별 최소 필요 시간 이상 지속적 활동하고 성취목표에 달성해야 각 단계별 포상 받음
- 탐험활동 및 합숙활동을 제외한 봉사, 자기개발, 신체단련 활동은 각각 일주일에 최소 1시간 이상씩 지속적으로 활동에 참여해야하고 7일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II. 기독교대한감리회 포상제 운영 현황

□ 기독교대한감리회 사)아름다운청소년들(총 70개 운영기관 승인)

의정부제일교회, 만나교회, 제천제일교회, 주님의교회, 동광교회, 춘천제일교회, 춘천중앙교회, 창천교회, 주안교회, 베다니교회, 광주교회, 대한기독교장로회 한일교회, 대한기독교장로회 수도교회, 원주청년관, 샘터문화원, 화천청소년수련관, 큰빛교회, 옥계중앙교회, 은혜교회, 둔산성광교회, 논현교회, 명성교회, 반석교회, 불꽃교회, 생연교회, 안산예담교회, 오목천교회, 우두교회, 철원만나교회, 혜성교회, 행복한교회, 광주교회, 배화여고, 세광고등학교, gvcs, 도봉교회, 상계경신교회, 성화교회, 단해교회, 영동교회, 한사랑교회, 이원교회, 도토리친구들청소년공부방, 웰링튼좋은교회, 사)아름다운청소년들 충남지부, 부산지부, 경민고등학교, 부산온누리교회, 마전교회, 새비전교회, 선한이웃교회, 큰나무교회, 복실교회, 나무들을위한숲, 한빛교회, 예심교회, 충주남부교회, 행복한교회, 화천제일교회, 아우라지지역아동센터, 빛고소금의교회, 온양생수교회, 신도제일교회, 대림교회

업무협약현황

화천군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프로그램 개발 업무협약, 기독교대한감리회 군선교회(150여개 기관) 업무협약, 계통학교 협의회(58개 중고등학교) 업무협약

□ 기독교대한감리회 포상담당관 : 전국 500여명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운영기관 모집 (The Duke Of Edinburgh's Award)

모집개요

- 모집기간 : 연중
- 모집대상 : 교회, 기관, 시설, 학교, 단체, 군부대 등
- 주 최 : 국제포상협회(IAA),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진흥센터 한국사무국
- 주 관 : 교육국 사단법인) 아름다운청소년들 중앙운영기관
- 문 의 : 교육국 사단법인) 아름다운청소년들 중앙운영기관
 - ▶ 전화 : 02-399-3955, 팩스 : 02-399-4379
 - ▶ 교육국 차세대교육부 : 02-399-4371 정현범
 - ▶ 사단법인) 아름다운청소년들 : 02-399-3955, 010-7377-2520 이용환
 - ▶ 이메일 : pureuny@hanmail.net

기대효과

- 운영기관
 - ▶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운영기관 승인
 - ▶ 국제적인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서의 전문성 인정
 - ▶ 차세대 선교 및 교회학교를 활성화와 교회 교육의 새로운 모델 제시
(교회활동 비교과영역으로 인정-교육과학기술부 창의체험활동과 연계)
- 포상지도자
 - ▶ 135개국에서 통용되는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포상담당관 수료증 제공
 - ▶ 전문교육 및 연수과정을 통하여 차세대 전문지도자로서의 전문성 획득
- 참가청소년
 - ▶ 국제포상협회 인증서, 여성가족부장관 인증서 제공
 - ▶ 참가활동기록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정보시스템 보존
 - ▶ 진로(취업과 입시 등)와 관련하여 참가활동기록 포트폴리오 제공
 - ▶ 교육과학기술부 창의적체험활동과 연계(여성가족부와 업무협약 2010년 5월24일)

부록 III. 목회자 가정의 정신건강 이렇게 관리하라

최 의 현

필자는 정신과 전문의가 된 후 특수 목회를 염두에 두고 신학 과정을 거쳐 목사가 되었고 지금도 모교인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전공의를 위시로 한 의료인과 예비의료인을 대상으로 목회를 준비 중이다. 그래서 로컬교회의 담임 목회를 고려해본 적은 별로 없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특수 목회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담임 목회를 고려하지 않는 것만 아니라 담임 목사의 애환을 감히 감당할 수 없으리라는 마음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

이제는 목회자가 여름휴가를 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편에 속하지만 얼마 전만 해도 목사가 무슨 휴가냐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목회자의 사적인 삶에 대해서도 고려하는 여유가 교회 내에서 자리 잡고 있으니 크게 환영할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에게는 여전히 과도한 희생이 요청된다. 그래서 개인의 삶이 침해를 받는다. 이는 가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 문제를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는 큰 이유는 목회자가 자신을 목회의 길로 헌신할 때부터 사역을 위해서라면 사생활이 침해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심지어 그러한 자신의 성향을 하나님께서 신 소명의 증거로 삼기 때문이다. 문제가 없을 때에는 이러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이해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목회자의 탈진이나 가족 건강의 위험 신호가 올 때에는 반드시 재고해야 할 부분이다. 사모와 자녀의 위치에 대해서도 논하여야 하겠지만 지면상 남성 목회자가 영향의 중심이 되는 경우를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1. 사적인 영역의 희생

일중독 가능성이 높은 한국인의 특성은 목회자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어떤 사역자는 분명 파트타임으로 갔는데 교회에 나가는 날짜가 한 주에 4일 정도이고 게다가 저녁 늦게 일이 끝나는 경우가 다반사다. 내로라하는 교회의 사역자들 중에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 이를 “제대로 훈련을 받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그러한 여건에 지원하는 사역자도 많다. 그렇다면 가족은 어떤 부분을 짊어지게 될까? 가족은 상대적으로 목회자인 가장과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든다. 가장 결정적인 시점은 부모의 양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 즉 자녀의 어린 시절이다. 동물행동학자 콘라드 로렌스가 각인(imprinting) 이론을 세웠는데, 이 개념은 동물이 어미를 인식하는 방식과 특정 시점(critical period)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사람의 경우는 이에 비견할만한 시점이 단기간이 아니라 만 1세에서 3세까지 약 2년 정도로 길다. 이 시점에 결합이 생기는 자녀는 커서 어떤 식으로든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목회자가 일에 치중에서 가정에 소홀히 하더라도 부인이 자녀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논리적으로는 맞다. 그런데 목회자의 사적인 영역의 희생이 사모의 심리적 지지 부족으로 이어져서 이에 따른 사모의 기능 저하로 인해 자녀 양육에 영향을 주는 경우를 고려해야 한다. 정서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성인이 그들 개인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성장 배경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게 되면 대부분은 자기를 양육한 대상 즉 어머니에게로 집중된다. 직접적으로 자신을 양육한 어머니에 대한 회상이 기억의 중심이 될 것이다. 그런 경우 사실 한 가지를 더 생각해봐야 하는데 “어머니는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라는 질문이다. 이러한 질문으로 어린 시절을 재구성하다 보면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영향이 수면

위로 올라온다. 어머니 개인의 문제인 줄 알았던 것이 아버지의 심리적 지지 부족에 따른 결과적인 반응이었음을 종종 깨닫게 된다. 그러니 목회자가 자녀 문제에 대해 부인의 탓으로 돌리기 전에 자기의 영향을 반드시 되돌아보아야 한다.

해결책은 가장 기본적인 원리에서 출발한다.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을 늘려라.” 그런데 사적인 영역을 희생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바뀌지 않고 시간만 늘리는 경우에는 몸만 있지 마음은 없는 현상을 초래하고 이는 더 큰 공감 결여를 낳는다. 휴가 기간에 모처럼 가족과만 있는 시간을 가지는 중에 오히려 대판 싸우는 경우가 있는데 공감 결여가 원인일 때가 많다. 그러므로 일보다 가족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 뿐이 아닌 가슴 깊이 느끼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사적인 영역을 희생하는 사람에게는 사실 이 점이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사적인 영역을 희생하는 사람의 경우 자신의 사적인 영역을 무시할 가능성이 높으며 가족의 사적인 영역도 비슷하게 취급하기 때문이다. 가끔 사모 중에 목회자인 자기 남편이 교인들의 사적인 영역은 그렇게 끔찍이 고려해 주면서 자신과 가족들의 사적인 부분은 왜 그렇게 무시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다. 이런 경우는 그 목회자에 있어서 자신과 남에 대한 경계가 비교적 분명하다는 이해를 가져야 한다. 문제는 가족을 자신처럼 여긴다는 점이다. 좋은 의미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사생활을 무시하듯이 가족의 사생활도 무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교인은 남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의 사생활은 보호하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뒤이어 언급하는 이중적인 태도와도 연관되어 있다. 이런 경우에 나와 남을 극단적으로 나누고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태도에서 벗어날 기회를 가져야 한다. 우선은 자신의 사생활을 귀중하게 여기는 태도를 배워야 한다. 그래야 자기의 영역이라고 여겼던 가족들의 사생활에 대해서도 소중하게 다룰 수 있다. 혹자는 이러한 방식이 기독교적인 자기 부인이 아니라 일반 상담학에서 주장하는 자기 성취 즉 이기적인 자기를 강화하는 방식이라고 비평하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인본주의 시각에서 나오는 제안이 아니다. 굳이 이러한 지침이 인본주의적인 입장인 것 같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그에 따른 대안적 제시를 하겠는데, 가족을 자기 영역에 두어선 안 되며 존중받아야 할 하나의 인격으로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전자의 방식으로 이해하든 후자의 방식으로 이해하든 되돌아오는 것은 가족의 사적 영역에 대한 존중이다. 그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족의 사적인 영역을 존중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가족의 사적인 영역을 듣고 그에 따른 감동을 얻는 것이다. 간단히 좋아하는 색, 노래, 음식, 가장 좋은 기억, 비밀스런 기억, 등을 적어보는 리스트를 만들어 가족들 각자 적어보고 서로 맞춰보는 게임을 해도 좋다. 내가 모르던 어떤 것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는 나름대로의 감흥이 생긴다. 그것이 상대의 사생활에 대한 존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

2. 이중적인 태도

교역자는 교회에서 요구되는 성실하고 인자한 태도를 유지해야 하는데 이러한 태도가 언제 어디서나 그래야 한다면 그 교역자는 탈진하게 될 것이다. 늘 성실하고 인자한 것은 이상적인 태도이지 보통의 무난한 개인에게 기대할 수 있는 덕목은 아닌 것이다. 그러니 교회에서 유독 성실하고 인자한 태도를 유지하도록 요청받으면 그 사람은 교회를 벗어나 특히 가정에서 짜증과 분노와 태만함을 드러내기가 쉬워진다. 초창기의 목회자 가정에서 나타나는 대부분의 문제점은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에서 출발했다. 가부장적인 문화가 강한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목회자의 이중성은 더 컸다. 아버지로서의 권위는 약용되어 자신의 이중적인 태도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이의를 제기할 경우 더 과도한 반응으로 응징하였다. 이렇게 교회에선 목사이지만 집에서는 폭군과도 같은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아버지를 부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신앙 자체를 부정하게 되었던 것이

다. 지금도 목회자 자녀 중에 탈선에 빠지는 예가 이와 비슷한 배경에서 나타나기도 한다.

이에 대한 해결책도 가장 기본적인 원리에서 출발한다. “이중적인 태도를 완화하여 겉과 속이 비슷하게 하라.” 겉으로 보이는 면과 속의 드러나지 않는 면의 차이가 심하지 않게 조절해야 한다. 평준화는 상항 평준화 보다는 하항 평준화가 쉽다. 그러니 과정적으로는 후퇴인 것 같지만 우선은 집 안에서의 부족한 부분이 노출되어 목회자의 외형적인 그럴싸함을 낮추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 때 TV 오락 프로그램 순서 중에 “당연하지!” 라는 코너가 있었다. 상대가 나에게 대한 다소 비방 섞인 표현을 해도 “당연하지!” 라는 응수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응수를 못하면 지는 것이 된다. 목회자가 자신의 치부를 다소 드러내어 그동안 멋있게 포장된 교회에서의 자신의 인격에 적당한 흠집을 내면서 그것을 “당연히 내가 그러하지!” 라고 인정하는 것은 과정상 아주 적절한 하항 평준화의 예가 된다. 어떤 목회자는 자신의 인간적인 면모 즉 나약한 면모를 나타내면 교인이 상처받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한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교인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목회자를 의지하는 것을 동일하게 여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중적인 태도를 가진 목회자가 스스로 이중성을 극복하기 어렵다면 제3자를 가족 관계 증진의 조력자로 끌어당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워낙 남에게는 잘 보여야 한다는 특성이 강하게 작용하다보니 제3자가 끼어들면 가족끼리 상황을 다루는 것보다 더 애쓰는 것을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각자의 고백을 적어보는 게임을 한다면 가족 외의 진행자를 초빙하면 된다. 부부치료나 가족치료 혹은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이러한 방법에 해당한다. 두란노서원의 아버지학교가 성공적일 수 있었던 요인 중의 하나가 이러한 측면이다.

3. 목회의 침체와 실패

여러해 전 필자는 파트 사역 중인 교회를 사임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다. 앞서 언급한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 과도기적 시기를 보낸 것이다. 초등학교생과 유치원생인 두 자녀를 두고 있는 우리 부부는 자녀들과 예배드리는 시간이 또 다른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했다. 확실히 또 다른 기회가 되었다. 아이들은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는 성경 지식이 빈약하였다. 내가 저 당시에 저 정도는 아니었을 것이라는 비교는 사실 객관적이지 않은 것 같고 보다 과도한 기대치가 작용하는 듯 싶다. 한 번은 둘째가 주기도문의 토씨를 계속 틀리는 것에 짜증이 나서 아이 엉덩이를 세게 때리기도 했다. 두어 주 지나니 아이들 입에서 “나 예전처럼 그냥 교회 다닐래.” 라는 소리가 나왔다. 가족끼리만 드리는 예배이니 예배 이외의 매력 즉 친구도 없고 다른 선생님도 없으며 여름성경학교나 달란트 시장도 없는 것이다. 부모의 게으름으로 다양한 어린이 찬송 및 복음성가를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는 것도 흠이 되었다. 결정적인 문제는 예배 시간이 허술해지는 것이다. 교회에 다닐 때에는 정한 시간이 있으니 나름대로 충실한 면이 있는데, 가족끼리만 예배를 드리다보니 이런 저런 상황에서 느슨해지고 예배 시간도 그에 따라 변동이 되었다. 초기에 가졌던 취지 즉 가족들끼리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점과 아이들의 신앙 지도를 직접 할 기회를 갖는다는 점은 지금도 유효하고 의미 있다. 하지만 그 취지가 무색하게 느슨해지는 측면이 재빨리 커지는 것을 느낀다. 비록 사역의 축소나 포기에 의해서 벌어진 상황은 아니지만 사역이 어려워지거나 사역을 내려놓게 되는 상황에서 가족들끼리 느끼거나 작용하는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게 된다.

목회가 자신의 기대와 달리 침체되어 있다고 여기거나 쇠퇴하고 있다고 여기게 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결과가 왜 이런가?” 하는 의구심이 생기면서 실망이 커진다.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부적합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불안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사실 그보다 더 많이 작용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경쟁 사회의 성취 지향적인 문화에서 낙오자로 여겨지는 낭패감이다. 이는 분명 목회자가 가져야 할 윤리가 아님

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사람도 예외일 수 없이 작용하게 되는 인간적인 측면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이러한 면을 애써 부정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혹자는 이런 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이것은 자기 회피 혹은 자기 방어라고 해야 한다. 자기 부인은 반드시 “직면(confrontation)”을 선행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당연하지 게임처럼 자신의 인간적인 면모를 직시하고 더 똑똑히 들여다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한 처절한 직면을 거쳐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진정한 자기 부인이 이루어질 것이다.

4. 목회자 가족에게 일어나는 정신질환

질병의 유병률에 목회자가 예외일 수 없다. 그래서 목회자 자신, 배우자, 자녀 중에 정신분열병과 기타 다양한 정신질환이 일반 인구의 유병률과 동일하게 발생한다. 그런데도 목회자 가족 중에 정신질환이 나타나면 매우 당혹스럽게 여긴다. 신앙이 투철한 사람에게 암이 발병하는 경우에도 비슷한 위기감을 겪는다. 이런 문제는 읊기에서처럼 병을 하나님의 형벌이나 죄의 결과로만 여기지 않고 새로운 의미를 찾아야 해결될 수 있다. 하지만 오랫동안 “왜 하필 내 식구가..” 혹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라는 의문을 쉽사리 떨치기는 어려울 것이다.

확실히 정신질환은 만만치 않다. 일단 증상이 나타나면 쉽사리 없어지지 않으며 일부는 계속 악화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알려진 지식을 동원하여 보다 더 나은 방향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약물치료도 이와 같은 방법 중의 하나이다. 약물치료는 한계가 있으나 많은 객관적 지표를 통해 검증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 한도 내에서 활용하면 된다. 그런데 다른 과 약물치료는 크게 부담스러워하지 않으면서 정신과 약물치료에 대해서는 유독 신앙이 거론되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가 많다. 최소한 정신과 약물치료를 다른 과 약물치료 정도로만 고려해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지침이 무난하게 세워질 것이다.

필자는 목회자 가정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질환을 직접 진료해왔다. 목회자들은 치료자가 기독교인이며 동시에 자신과 목회자 가정의 특수성을 이미 충분히 감안하기를 기대하고 또한 비밀 유지가 잘 되기를 바란다. 필자를 위시한 대부분의 기독교 정신과 의사들은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한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엔 어려운 경우들이 있다. 대표적인 경우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이다. 입원을 하게 되면 당사자의 활동에 공백이 생기다보니 문제 노출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용히 덮어서 해결할 단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오히려 노출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아무리 치료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본인과 가족들이 느끼는 죄책감과 억울함 특히 상실감은 벗어날 수가 없다. 치료자는 이러한 부분을 함께 짊어질 수 있어야 한다. 치료자는 새로운 가족 성원이 된다.

필자가 원고를 쓰느라 고민하고 있을 때 옆에서 아내가 “자기 가족에게 먼저 잘 하세요” 라고 진담어린 농담을 건네었다. 그 말이 자극이 되어서 목회의 침체와 실패 부분을 작성하였다. 많은 문제의 핵심에 목회자 자신의 약함과 약함이 놓여 있다. 담대하게 솔직할지 방어하고 은폐할지의 갈림길에 놓일 때 조금씩 더 담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란다.

부록 IV. 목회자의 탈진 쉼 그리고 재도약

최 의 현

언제인가 어느 목회자가 한 말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내용은 이러하다. 어떤 유명인사가 목회자들이 참석하는 세미나에서 “설교”를 맡아 하였다. 그리고는 예배 후에 참석한 목사님들 중 일부와 담소를 나누게 되었는데 누군가가 이 유명인사에게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는 것이다. 이 말을 전하는 목회자의 본래 의도는 이러하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하는 데에 있어서 최고의 전문가인데, 어떻게 유명인사에게 그것을 묻느냐는 것이다. 목회자가 자기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는 면에 있어서는 참으로 옳은 말이다. 하지만 상식적으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대화 중 하나이고,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할 질문이라 여기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런데 목회자의 탈진의 영역에서 다소 극단적인 비유를 들자면, 유명인사에게 질문한 목회자 보다는 이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목회자가 “탈진할” 가능성은 더 높다. 이 점에 관해 조금씩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목회자들은 여러모로 외부적인 스트레스가 많은 직종이다. 누구나 쉽게 동의하는 대로, 사람을 대하는 직종이 가장 어려운 일이다. 그나마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과 지내는 직종이라면 비슷한 대상으로서의 일관성이 조금 부여되지만, 지역교회의 교인들에게는 그러한 일관성이 별로 확보되지 않는다. 그리고 일의 성격에 있어서도 그렇게 품위 있는 일만은 아니다. 이른바 뒤치닥거리라고 부르는 다양한 종류의 일들을 늘 직면해야 한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대개 제 나이보다 늙어 보인다는 얘기도 하고, 일찍 죽는다는 얘기도 한다.

이러한 외형적 스트레스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목회자 자신이 스스로 부여하는 내면적 그리고 성격적 특성에 따른 것이다. 외부적 스트레스로 정 힘들면 그러한 환경에서 떠나 휴식을 취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어느 정도 여유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자기 안의 요인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쉽게 벗어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더 큰 요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목회자의 내면적 부분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 비교적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접근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가급적 직접적이면서 구체적인 언급을 해보려고 한다. 이러한 방식이 갖는 문제들은 모두 저자의 부덕한 소인이라고 생각하여 널리 이해해주시기를 바란다.

목회자의 내면적인 특성을 생각해보기 위해서는 처음 출발에서부터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 그 질문은 “왜 나는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하였는가?”라는 질문이다. 대개 신학교 입학할 때 면접에서 가장 많이 하게 되는 이야기이고,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그 자리에서 나온다는 것을 익히 아실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 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에만 관심을 가짐으로 정말 목회자가 되겠다고 결심한 나머지 반쪽을 무시하거나 모르게 된다. 하지만 그러한 자신의 요소는 목회 활동 내내 자신의 결단과 행위 안에 묻어있다. 그러므로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이 보다 자신의 사역을 폭넓게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목회자가 되기를 바라는 내면적 이유 몇 가지를 나열하면서 그와 관련되는 내적 스트레스의 특성을 함께 생각해보고자 한다.

우선은, 완벽주의 성향이다.

완벽주의 성향의 개인은 목회자의 결심에 있어서 사람에게 중심을 두기보다는 일에 중심을 두게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사람은 완벽주의적인 방식의 틀에 잘 맞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일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꼼꼼하고 조직적으로 해결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영혼의 구원보다는 전도사역에 관심을 갖고 영혼의 변화보다는 설교의 질에 관심을 갖는다. 교회는 변수가 많은 환경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이른바 ‘

일처리를 잘했다’ 는 이야기를 듣는 것은 상당한 인정이 아닐 수 없다.

완벽주의 성향의 사람들은 인간미가 떨어진다. 무언가 허술하거나 부족한 것을 “죄” 로 취급할 가능성이 높다. 자신에게도 그러하거나, 교인에게도 그러하므로 교인들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비슷한 측면으로 생각하게 되기 쉽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하다는 겸손은 잘 이끌어내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자긍심을 세우는 데에는 상당한 한계를 보인다.

완벽주의를 갖게 된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의 요소가 있다. 하나는 완벽주의에 부응하는 자신의 능력이다. 어차피 일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성향을 갖기가 힘들고, 가졌다 치더라도 벌써 포기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능력있는 게 항상 좋은 건 아니다. 둘째는 완벽주의에 흠이 될만한 자신과 주변의 어떤 문제이다. 완벽주의자는 자신의 한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도 불완전하고 문제되는 것이 있거나, 아니면 자신의 가족이나 주변에서 감추거나 버리고 싶은 불완전성이 있다. 어떤 목회자는 어려서부터 외도를 하는 아버지를 늘 욕하고 너는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반복하는 어머니 밑에서 성장하면서 학교나 교회에서는 너무나 성격 좋은 사람으로 지내지만 자신의 가족 관계에 대해서는 절대 공개를 꺼리는 맥락으로 자라왔다. 그는 자신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똑같이 자신이 목회자가 되어야 할 사람이라고 인정받아왔다.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에서 완벽성을 기울이면 대개의 경우 반대편이 굽는다. 그래서 교회사역에 충실하면 그의 가정은 매우 어수선하고 이율배반적이 된다. 이러한 이중성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목회자의 자녀가 탈선하는 경우가 있다.

완벽주의 목회자는 일중독 성향에 의해 자기 무덤을 파는 식으로 일에 치여서 탈진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 무분별하게 일을 벌여놓으면 다른 일까지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게 된다. 자기의 분량만큼 일을 만들고, 무리라고 여기는 부분에서 적절하게 거절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 때 완벽주의 목회자는 “무리” 를 판단하는 기준이 높기 때문에, 자신에게 완벽주의 성향이 있다면 자신이 느끼는 것보다 다소 수월한 수준에서 일을 더 벌리지 않고 거절하는 훈련이 매우 중요하다.

둘째는, 권위주의 성향이다.

어려서부터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은 그에 합당한 권위를 부여하는 직업에 대해서 호감을 갖는다. 교사, 판사, 의사, 목사, 등의 직업은 이러한 점에서 어느 정도의 공통점을 갖는다. 그런데 그러한 직종을 선택하려면 특정 직업은 상당한 실력이 있어야 한다. 실력이 없으면서 권위를 가질 수 있는 직업은 흔하지 않다. 실례되는 말이지만, 목사는 특출한 실력이 없으면서도 권위를 소유할만한 가능성이 있는 직업이다. 이제 많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교인들은 교역자를 교역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존중한다. 그리고 교역자를 섬기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으로 동일시하는 말을 교역자 자신이 공공연히 하기도 한다. 자격이 되지 않는 교역자에 대해서 누구도 쉽게 건드릴 수 없다. 저자의 이러한 표현에 수긍하는 사람보다는 불쾌히 여기는 사람의 경우에서 자신에게 권위주의 성향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필자가 알기로는 사람마다 확실히 권위주의 성향의 정도는 다르며 자신의 권위주의에 대해서 잘 아는 지도자가 더 건전한 권위를 발휘하게 된다. 권위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모든 것을 처리할만한 자격이 있다고 평가하기 쉽다. 그래서 이에 어긋나는 상황에 대해 상당히 쉽게 상처받거나 분노하게 된다.

권위주의 성향은 부모의 권위주의를 물려받거나 혹은 성장과정중의 심한 자기애적 상처에 의해서 생겨난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긍지를 스스로 세우는 면이 있다. 적절한 정도의 이러한 측면은 건강한 것이며, 자신감의 원동력이 된다. 그런데 자기애적 상처를 받은 사람은 손상된 긍지를 세우기 위해 과도한 자기인정을 스스로

부여한다. 그래서 과도한 권위의식을 발휘하게 된다.

권위주의 목회자는 자신의 권위를 손상 받는 상황에서 탈진하기 쉽다. 하지만 냉정히 생각해 보면 권위주의 목회자가 한 번 탈진하기 위해서는 그를 돕는 다른 교역자나 교인들은 적어도 두 세 번 이상 이미 탈진을 경험한다. 권위주의 목회자는 누구보다도 교인의 마음을 읽어내는 역지사지의 마음을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이 타인을 착취하고 있다고 가정하여 여러 상황에서 자신의 영향을 재검토해야 한다.

셋째는, 희생주의 성향이다.

교역자는 확실히 희생을 하기에 가장 좋은 직업이다. 그러므로 얼핏 보면 이러한 성향은 신앙의 전형이라고 할 만큼 순수하고 고귀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불필요하고 과도한 자기 부정은 건강하지 못한 흐름을 갖는다. 이들은 자신의 선호와 타인의 선호에서 항상 타인에게로 기울어지는 이타주의 특성을 보인다. 문제는 그러한 특성을 자연스럽게 여기지 않을 때에 있다. 불만은 생겨나지만 표출되지는 않는 식이다. 이러한 불만은 내적으로 고이고 썩어간다. 그래서 스스로를 파괴하는 부분이 되는 것이다.

희생주의 성향은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과도하게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한다. 자신은 늘 고통을 받아야 할 존재로 취급하기도 한다. 희생주의 성향의 사람들은 어릴 적 자신의 의지와 판단으로 결정하거나 행동한 일에서 상당한 부정적 평가나 부정적 결과를 낳았던 경험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은 자신의 것은 가능한 포기하고 타인에게 맞추는 대인관계 패턴을 만들어낸다.

희생주의 목회자는 우울감에 빠지기 쉽다. 우울감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반응적으로 찾아오기도 하지만 의식적으로 느껴지는 별다른 이유 없이도 마음과 몸이 가라앉는 ‘우울’을 경험하기도 한다. 이것은 심리적인 악순환의 결과이다. 희생주의 목회자는 자신을 발견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예수님의 겸손하심과 밀알의 비유 모두 자신을 파괴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참 자신을 일깨우는 작업을 의미한다.

넷째는, 투사적 성향이다.

투사(Projection)는 자신의 부분을 남의 것으로 취급하는 심리적 방어방식을 말한다. 누구를 좋아하는 자기 마음이 투사되면 역으로 남이 자신을 좋아하는 것으로 느낀다. 누구를 미워하는 자기 마음이 투사되면 역으로 남이 자신에게 해꼬지를 하는 것으로 느낀다. 자신에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어떤 마음이나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이 벅차거나 부담스러워서 하는 방식이다. 이런 투사적 성향이 두드러진 교역자는 자신이 교역자가 된 혹은 교역자가 되기로 결심한 이유에 있어서 자신의 부분보다는 외부적인 부분을 극대화하고 자신의 요인은 거의 대부분 무시한다. 비단 교역자의 과정 뿐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 자신의 요인은 고려하지 않고 외부적인 요인만을 고려한다. 신앙적으로 좋은 분위기 속에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고 설명하는 반면, 무언가 안 좋은 결과나 상황이 나타나면 관련된 상황이나 타인의 부분만을 지적하고 문제시한다.

투사적 성향은 어려서부터 안심하고 신뢰할만한 대상이나 배경이 없었을 때 흔히 형성된다. 에릭슨은 “기본적인 신뢰감”이라는 용어를 통해 이러한 부분을 설명했다. 기본적인 신뢰감이 있는 사람들은 초면의 대상에게 의심보다는 호감의 면을 조금 더 가지게 된다. 그러한 마음이 사람과의 관계를 더 건강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준다. 하지만 이러한 성향을 확보하지 못한 투사적 성향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대상과 자신 스스로를 신뢰하지 않는다.

투사적 성향의 사람은 위기의 상황에서 병리적인 현상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 피해의식과 사고 왜곡이 흔

히 일어나며 이에 따른 감정적 불안정, 의심, 분노, 이간질, 대인관계 분쟁의 여러 문제가 파생된다. 위기의 상황은 많은 경우 대인관계의 갈등에서 출발한다. 자신의 성향으로 인해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서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가 많으며, 그것을 해결해나가는 것에 있어서도 부적절한 방식을 도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투사적 성향의 목회자는 자신의 취약성이 남들보다 높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해야만 한다. 투사적 성향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미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어떠한 성향이든 하나님 안에서 다스려지지 못할만한 것은 없다. 우리는 우리의 성향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실 그대로를 직시한 다음 우리의 성향을 변형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것이 건강한 ‘자기 부인’의 순서라고 생각한다.

목회자들은 사소한 흥미나 의욕이 줄거나 농담이나 취미에 이상 징후를 나타내는 초기 현상을 거쳐 잦은 신체적 불편, 피로, 안절부절, 사역적 능률의 저하, 우유부단해짐, 좌절, 자기 통제의 감소, 우울, 탐닉, 부정확한 습관이 생겨나거나 탈선하게 되는, 등의 점차 깊은 단계로 탈진을 경험하게 된다. 이 때 우선적으로 목회자가 선택할 것은 “쉬는 것”이다. 목회자는 적절한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여 사역에서 다소 떨어져 있을 시간을 가져야 한다. 어떤 이는 이 시간을 혼자 보내는 것을 선호하며, 어떤 이는 이 시간을 사역과 무관한 다른 사람과 함께 보내는 것을 선호한다. 이것은 개인의 특성에 맞추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휴식의 기회를 마련하여도 탈진의 문제가 별로 회복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이런 경우에는 자신의 내적인 특성을 고려해야 할 단계라고 여겨야 한다. 예상과는 달리 이러한 시점에서 자신 스스로나 동료 교역자는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기도 한다. 기독정신과의사나 기독상담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많은 목회자들이 자신의 문제를 목회자가 아닌 사람에게 의뢰한다는 것에 부정적이고 비 신앙적이라 여기며,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말할 자신이 없고, 치료자의 판단과 거절을 우려하거나, 비용적인 부담을 이유로 하여 상담을 활용하지 않는다. 탈진한 목회자는 본래 기능이 좋다 치더라도 지금 시점에서는 자신을 ‘환자’로 여겨야 한다. 그래서 회복이 된 후에는 상담이나 치료의 기회를 이용하지 않을 정도로 자신의 자긍심을 세워도 무방하지만, 어려운 와중에 불필요하게 자신을 감출 필요는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도움을 받아본 지도자만이 타인을 적절하게 도와줄 수 있다. 한 번도 남에게 도움 받지 않고 남을 도와주기만 하려는 교역자는 분명 심각한 대인관계 왜곡이 있는 것이다.

탈진의 상황에서 반드시 거론해야 할 것은 “탈선” 즉 “죄”의 문제이다. 판단의 차이에 따라 죄로 규정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지만 많은 탈선의 양상들이 탈진 상황에서 드러난다. 성적 탐닉, 자위행위, 도박, 도박, 부부싸움, 분노폭발, 자해 혹은 타해, 착취, 등의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한다. 신앙적으로 죄는 물론 회개함으로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심리적인 측면을 잘 생각해야 한다. 이러한 현상들은 단순히 “잘못했다”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의 불균형을 보여주는 하나의 “신호등”이다. 잘못에만 매어있다가는 본질을 놓치기도 한다. 탈선이 탈진에서 유래한 것이라면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은 탈선이 아니라 탈진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한다.

목회자는 목회자의 특수성으로 인한 독특한 스트레스를 겪는다. 어쩌면 이것은 목회자로서 갖는 짐일 수도 있다. 한계를 가진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어느 한 구석은 멍이 들고 굼을 가능성이 있다.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선하신 섭리 아래 있기를 기도함과 동시에, 우리가 공동체 내에서 서로를 도와가며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충분히 활용하기를 바란다.

참석자 명단 (81명)

□ 서울연회(10명)

지방	교회	성명	직분	연급	성별	주소	연락처
강북	예인	김영삼	목사	정4	남	강북구 우이동 72-72 (3층)	010-4476-3434
도봉	광성중앙	김경보	전도사	서리	남	도봉구 방학동 694-23(지층)	010-2790-4516
성동광진	성광	안종명	목사	정3	남	광진구 구의동 69-1	010-7373-6530
	햇빛	조항권	목사	정2	남	광진구 능동 235-22 1층	010-4316-1498
	CM	김병도	전도사	서리	남	광진구 중곡1동 241-15	010-2755-7458
성북	기쁨의	이길웅	목사	정1	남	성북구 종암동 128번지 극동아파트상가202호	010-2833-4747
	목양	윤재웅	목사	정2	남	성북구 장위1동 214-14	010-4745-9117
	맑은샘	김석윤	목사	정2	남	성북구 정릉동 45-20 대성빌딩 5층	010-9461-7236
	세원	민병희	목사	정6	남	성북구 석관동 200-18	019-362-6201
	재미있는	이재은	전도사	서리	남	성북구 장위2동 238-82 (지하)	010-4268-4860

□ 서울남연회(5명)

지방	교회	성명	직분	연급	성별	주소	연락처
강남동	우리	박병윤	목사	정	남	경기 김포시 풍무동1번지 길훈아파트 104-702	010-6345-6100
강서동	로델나무	김현옥	목사	정2	남	서울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파크 1005동 10단지 503호	011-9786-9124
	실로암	안일찬	목사	정1	남	서울 강서구 화곡동 372-15	010-3728-9780
동작	반석	최지원	목사	정1	여	서울 동작구 흑석동 327 청호상가 B-103	010-2799-4327
잠실	이랑	유선행	목사	정1	여	서울 송파구 삼전동 8-9	010-8877-2722

□ 중부연회(6명)

지방	교회	성명	직분	연급	성별	주소	연락처
구월	희망찬	김준성	목사	정3	남	인천 남동구 구월동 1306-11	010-7769-3041
김포	시냇가에 심은나무	유삼봉	목사	정	남	김포시 장기동 1339 청송마을 상가동 3~302	010-3855-4176
부평서	사랑	윤요한	전도사	준1	남	인천 부평구 십정2동 484-22	010-7356-0601
인천	만석	김수용	전도사	staff	남	인천 동구 만석동 9-63	010-3897-2315
	만석	이종철	전도사	staff	남	인천 동구 만석동 9-64	010-6396-8990
인천동	새누리	지선구	전도사	서리	남	인천서구가좌3동261-2한샘아파트C동302호	010-2023-4862

□ 경기연회(4명)

지방	교회	성명	직분	연급	성별	주소	연락처
경기남	공도제일	권성은	목사	정7	남	안성시공도읍용두리244-22	010-6314-5258
권선서	영광	전재익	목사	정1	남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105-21	010-4946-7257
안산	영광	박기성	목사	정7	남	안산시 단원구 와동 810-3	010-8844-7274
평택	군인교회	채애니	목사	정1	여	충남 논산시 광석면 사계로 1005-7	011-9052-0179

□ 중앙연회(5명)

지방	교회	성명	직분	연급	성별	주소	연락처
구리	하늘문	임동열	전도사	서리	남	경기도 구리시 수택2동 462-33	010-5046-7015
남양주	제자	배영호	전도사	준1	남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한강우성아파트A상가 308호	010-7410-0558
성남	이레	이철희	전도사	서리	남	경기성남시수정구신흥2동127번지3층	010-7713-1339
포천	다솜	윤연화	전도사	서리	여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150-3 (3층)	010-6295-0131
양주		안현귀	전도사	개척 준비	남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 송산주공아파트 104-602	010-8867-0896

□ 동부연회(1명)

지방	교회	성명	직분	연급	성별	주소	연락처
속초남	광정	박재성	목사	정4	남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상광정리 527	011-701-6737

□ 충북연회(4명)

지방	교회	성명	직분	연급	성별	주소	연락처
영동	행복한	오필록	목사	정7	남	충북 옥천군 옥천읍 가화길 1-10	010-4588-0191
음성서	선한이웃	임원택	전도사	준1	남	충북 음성군 개소면 태생리 539-63	010-8957-9633
청주북	청주은혜	이명춘	목사	정7	남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내덕1동 728-17	010-2482-0057
충주동	용탄	이선호	목사	정2	남	충북 충주시 용탄동 사래실길 20-2번지	010-9817-9775

□ 남부연회(2명)

지방	교회	성명	직분	연급	성별	주소	연락처
대덕	주심	김영천	전도사	준2	남	대전시 대덕구 법2동 198-5	010-4446-7838
둔산	밀레니엄	류대환	목사	정	남	대전시 서구 월평동 423번지 (지하1층)	010-7223-9809

□ 충청연회(2명)

지방	교회	성명	직분	연급	성별	주소	연락처
예산서	오추리	유영석	전도사	준2	남	예산군 고덕면 오추리 2구 445	010-7731-6477
홍주	실로암	김인경	전도사	준1	여	충남 홍성군 홍성읍 고양리 1077 아파트주상가201호	010-3417-1500

□ 호남선교연회(3명)

지방	교회	성명	직분	연급	성별	주소	연락처
전남서	금동	최윤희	전도사	준2	여	전남 영암군 신북면 양계리 산7	010-3251-0641
전북 서남	김제시온	양승민	목사	정1	남	전북김제시 검산동 820-1	010-3471-1418
	실로암	전요한	전도사	준1	남	전북 부안군 동진면 당상안길 7	010-8825-4950

□ 삼남연회(39명)

지방	교회	성명	직분	연급	성별	주소	연락처
경북북 (17명)	갈 전	하현성	목사	정4	남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갈전길 190-1	010-9630-2153
	군위	이원목	목사	정	남	경북 군위군 군위읍 군청로 130	010-8670-1016
	동로제일	김건진	목사	정8	남	경북 문경시 동로면 상석길 50	
	모전	이영규	목사	정1	남	경북 문경시 모전동 당교로 224-1	
	봉화하늘다리	이상명	목사	정	남	경북 봉화군 명호면 고계리 555-1	010-3171-0490
	빛마을	이희진	전도사	준1	여	경북 영주시 문수면 문수리 1334	010-7768-0675
	사동	김성은	목사	정2	남	경북 영양군 청기면 골기포길 20-4	
	신 곡	장경호	전도사	서리	남	경북 상주시 공성면 남실길 411-19	
	안동산돌	이용정	목사	정	남	경북 안동시 마들큰길 42	010-8639-0967
	안동소명	최대훈	전도사			경북 안동시 단원로 95(운안동)	
	안동제일	백종석	목사	정7	남	경북 안동시 태사2길 85	010-5201-1072
	완 장	조성도	목사	정	남	경북 문경시 가은읍 대야로 803-7	
	의 성	조창희	목사	정	남	경북 의성군 의성읍 안평의성로 1193	
	지산	김점용	목사	정	남	경북 상주시 이인면 지산리 273-2	
	진보	박홍식	목사	정1	남	경북 청송군 진보면 진보로 77	
	효곡	이동현	전도사	서리	남	경북 상주시 공성면 효자로 551-29	
	상주	김영운	목사	정	남	경북 상주시 냉림동 143-24	011-254-3200
경북서 (6명)	구미	강상도	목사	정	남	경북구미시인동28길61-5(진평동)	
	김천	백기성	목사	정	남	경북 김천시 부거리 4길 9-6(신음동)	
	벨엘	김윤옥	목사	정	남	경북 김천시 평화장미5길 36(평화동)	
	비전	곽조형	목사	정8	남	경북 구미시흥안로 2길 6-41(옥계동)	
	양각	홍성범	전도사			경북김천시구성면양각1길70-5	
	햇불	노경우	목사	정10	남	경북 성주군 성주읍 경산2길 53-5	
대구 (5명)	소망	유병찬	전도사	서리	남	대구시 북구 관음동 1364-14	010-9702-2642
	은평	김윤환	목사	정2	남	대구 동구 불로동 1159-5 2층	010-3423-2703
	청 도	전영섭	목사	정2	남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서 4길 3-26번지	010-5873-7618
	회복	오창영	전도사	준1	남	대구광역시 북구 읍내동 1357-12 2층	010-5098-1542
	북대구	양경규	목사	정8	남	대구시 북구 검단동로 14-7 (검단동)	010-5532-4474
진주 (6명)	둔기선교	이 석	전도사	서리	남	경남 거창군 고제면 봉산리 1103	010-5501-5658
	산청제일	이치운	목사	정10	남	경남 산청군 산청읍 지리 322-6	010-5580-2889
	진주	김동훈	목사	정6	남	경남 진주시 호탄동 304-14	010-4524-3684
	반성새주님의	류광은	목사	정	남	경남 진주시 일반성면 개암리 808-1	010-3736-2354
	승전	전성환	전도사	서리	남	경남 합천군 옥곡면 임복리 744-2	010-4938-0191
	양평	이근원	목사	정8	남	경남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604	010-9255-1815
한려 (5명)	삼천포	박동원	목사	정3	남	경남 사천시 용강동 809번지 돌을연립 401호	010-9560-0691
	삼천포중부	강천규	목사	정6	남	경남 사천시 용강동 559-4	010-6550-1009
	지리산평화	문영주	전도사	서리	남	경남 하동군 옥종면 위태리 1088-4	011-7444-5493
	사천보문	고요한	목사	정1	남	경남사천시정동면예수리479번지	010-6470-7797
	푸른나무	김원수	목사	정9	남	경남 통영시 미수동 477-3	010-9622-2257

강사명단

성명	강의제목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문희 소장	웃음전도법	02-3412-2623	king650621@hanmail.net
태동화 목사	작은교회 이야기	010-6529-1324	kmcmmission@hanmail.net
정경수 목사	무릎으로 시작하는 목회	010-5118-0691	yuiop3200@hanmail.net
임용택 목사	저녁집회	031-458-5941	joywon77@hanmail.net
이홍규 목사	왜 다윗인가?	017-322-0691	yshklee@hanmail.net
지성래 목사	이 일을 계속하라	010-9246-9413	srjee0531@hanmail.net
박시현 목사	다문화가정중심목회	010-5087-9729	siheonpak412@hanmail.net
이종명 목사	생태목회와 좋은마을 만들기	010-9706-3926	songarkgol@hanmail.net
최인수 목사	열정적인 관계전도	010-2282-8291	gcbcis@hanmail.net
박보영 목사	목회자의 자세	010-4012-2421	mjm0415@nate.com
원종휘 목사	조별나눔 및 소감발표	010-5479-8040	revwon@hanmail.net
최의현 박사	목회와 정신병리	02-707-0891	jesus9694@hanmail.net
김진호 감독	박영쿨이 주는 교훈	011-9269-1010	

비전교회 함께하기 운동본부 조직

회 장 김진호 감독 (도봉교회 원로)

부 회 장 한정호 감독 (서정교회)
김기택 감독 (성천교회)
권오서 감독 (춘천중앙교회)

본 부 장 강문호 목사 (갈보리교회)

※ 진행팀 전화번호입니다.

총 무	원종휘 목사 (만석교회)	010-5479-8040
협동총무	태동화 목사 (본부 선교국)	010-6529-1324
서 기	계 인 목사	010-3357-9182
회 계	이광호 목사 (도봉교회)	010-6576-1489
감 사	김상현 목사 (부광교회)	
	지성래 목사 (예수사랑교회)	
실행위원	강홍복 감독	
	김종훈 감독 (월곡교회)	
	김동걸 목사 (돈암동교회)	
	김규현 목사 (반석교회)	
	유기성 목사 (선한목자교회)	
	이흥규 목사 (큰믿음유신교회)	
	김응용 목사(은제교회)	
	이재훈 목사(필리핀평강교회)	

* 이 세미나를 위하여 모든 임원들이 정성껏 후원하여 주셨습니다.